朝鮮日報
夕刊
三十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過渡期十年間 四十萬豫備軍養成

大小艦船數百隻을建造하고 飛行機는二百五十機가될터

卅年後엔百二十萬

比律賓共和國 國防卅年計畫

比島大統領케손氏

【마닐라二十九日發同盟】米國陸軍參謀總長이요 現在케손大統領의 軍事顧問인맥아ー더將軍은 二十九日 陸海空三軍에 亘하야 軍備를充實케할 比島國防三十個年計畫을 發表하엿는데 計畫의 骨子는 如左하다

陸軍은앞서 全國에亘하야 發表한 義務的兵役制度의 實施에 依하야 明年一月一日부터는 每年壯丁 四萬人을 徵集訓練하고 따라서 콤몬웰스過渡期十年後의 比島는 總計四十萬人의 豫備軍을가지게 될것이오 三十年後에는 右豫備軍兵力은 百二十萬人이될터이다 義務兵役制의 確立에 伴하야 兵器軍需品을 整備하기로 決定하고 此等豫備軍은 一朝有事時最短期間內에 武裝動員을完了할수잇게되며 沿岸防備는 三十年後에는 乘組員八十人砲二門 水雷發射管六個의 快速海岸巡邏艇五十隻 乃至 百隻을 保有할터이다 此等快速艇은 行動이 機敏하야 容易히 敵艦의 襲擊目標가 될수업는것으로 이미 實證된바와가티 그性能은 자못 優秀하고 그費用은 少額이어서 潛水艦一隻의 費用으로 五十隻은 容易히만들수잇다 空軍은 三十年後에는 軍用機 二百五十臺를가지게 될것이다 이리하야 海空兩軍의 協力으로 比島領海에의 敵艦侵入은 絕對로 擊退할수잇게될것이다 三十年後比島는 難攻不拔이되어 그鞏固한 安全感을 가지고 太平洋과 世界平和維持에 不可缺의 重要因이될것이다

中國阿片取締를 日本政府에勸告

憂慮할情勢의原因이日本賣藥業者에잇다고 聯盟委員會에서決議

【주네브廿九日發電通】國際聯盟阿片諮問委員會는 二十九日 日本에 對하야 極東의 日本人賣藥業者의 取締强化를 勸告하는決議를可決하엿다 決議要旨는 如左하다

中國의 憂慮할 情勢의 原因의一半은 日本의 合法的賣藥業者의 行動에잇다 그들은巨大한劑量을 바탕한 行爲를敢行하고잇다 日本人의 政府는 阿片密輸阻止、防止에 不適當하다고 보이기까지에 到達하엿다 玆에本委員會는 日本이 速히 日本人賣藥業者를 取締할手段을 取하기를 要望한다

米海軍豫算 兩院協贊完了

【華盛頓廿九日發電通】三萬五千噸主力艦二隻의 建造權을 包含한 五億三千百萬弗의 米國海軍豫算은 五月一日 下院通過後上院에서 小修正을 加하야 主力艦建造는 他國이 建造한 境遇에 限한다는 旨의 制限을 附한後 再次 下院에 回附되엇는데 下院은 二十九日 右修正案을 包含한 豫算을 承認하엿스므로 玆에 同案은 全議會의協贊手續을 完了하야 國務長官으로부터 大統領에게 回附되엇다 이는 元來 政府方針을 基礎로한것으로 大統領이 이에 署名할것은 틀림업서 同案은 玆에 事實上 確定되엇다

米海軍豫算骨子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下院은 二十九日 兩院協議會에서 決定한 一九三六、三七年度海軍豫算案을 承認하야 卽時 大統領에게 法案을 回附하기로 決定하엿다 海軍豫算骨子는 如左하다

總額五億二千六百五十四萬七千弗中 主要한項目은 如左하다

一、主力艦二隻建造費
現行海軍條約締約國의 어느나라가 主力艦代艦建造에 着手한境遇에는 卽時 主力艦二隻建造에 着手할 權限을 大統領에게 賦與할것
一、驅逐艦十二隻 潛水艇六隻 新規建造費
一、主力艦을 除한 各種艦艇八十四隻建造續行費
一、空軍擴充費
軍用機三百三十五臺購入其他
一、兵員增加 常備兵力現在의九萬三千人으로부터 十萬人으로增加
一、軍用機發動機試驗費

村井領事의抗議 濠洲關稅相一蹴

結局通商擁護法發動?

【東京電話電通】濠洲政府의 關稅引上及 輸入許可制度의 實施는 日本綿布人絹類輸出에 거의 禁止的인 影響을 與하므로 村井시드니總領事는 二十八日 首相官邸에 赴하야 濠洲政府關稅相가레트氏와 會見하고 反省을 要望하엿는데 二十九日 同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信에 依하면 濠洲政府는 全然 態度를 變更할 意思가업는것이 明白하게되엇다 卽 가레트氏는 今回措置는 濠洲의 國策上 不得已한 事情에 依한것이매 新聞紙에는 나의 意見이라고 日本에 거의 影響이업다고 述한것가티 傳하야 日本側을 刺戟하고잇는 模樣이나 如何한 影響을 與하는지에 關해서는 나는 意見을 述한적이업다 그리고나는 日本側에서 말하는 바와가티 大打擊을 與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綿布人絹類는 今後도 依然히 日本品이 主要한 地位를 占할것은 疑心업다 何等緩和策을 取할 用意는 업다는 旨의 意見을 明白히 하엿다 이에對하야 村井總領事는 日濠會商의 進行中 如此한 急激한 手段을 取한것은 遺憾이다 日本側에서는 자못 憤慨하고잇다 濠洲側에서는 日本品에 影響이 업다고 보고잇스나 來賓은 日本側에 大打擊을 與한다 情勢가 如斯하므로서도 對抗的으로 報復措置를 取할수밧게업다라고 濠洲側의 再考를 促하고 會見을 終了하엿다

建築土木工合勢 巴里金工罷業擴大

【巴里二十九日發同盟】二十六日부터 開始된 巴里金屬工六萬의 罷業大衆議는 二三日에 勞働相以下 關係當局의 斡旋으로 妥協이 成立되리라고 보히바 二十九日早朝 化學工業勞働者도 參加한 結果 罷業人員八萬에 達하고 建築土木業者에도 波及하얏는데 特히 土木業에서는 明年度世界博覽會場工事場의 現業員이 全部 罷業에 參加하야 一齊히 休業하고잇서서 建築土木業의 罷業도 有力視되고잇는 狀態이다

對中外交調整次 有田外相重大聲明?

【東京電話同盟】日中關係는 昨年秋以來 些少한 感情疎隔으로 三原則에依한 日本對中親善具體化도 中國側의 意向이 薄弱하야 過去半歲를 無爲로 經過해왓는데 有田外相은 議會終了를 機會로 드되어 日中國交調整에 進出하기로 決意하고 桑島東亞局長을 北中에 派遣하야 現地情勢視察에 當케하는外 外交一元化를 爲하야 三省會議設置等 準備를 進行하고잇던바 中國側에서도 이必要를 痛感하고 去二十五日 外交部長 張群氏는 日中國交調整은 兩國의 責任이다 라는 重要演說을 行하야 日中交涉促進의 誠意를 披瀝하엿는데 右에 對하야 有田外相은 今後는 一切의 障碍를 버리고 東亞平和의 大局的見地에서 日中提携에 邁進하기로하고 이를 機會로 來六月一日을 期하야 重大聲明을 發表하야 張外交部長의 演說에잇는 日中親善關係樹立의 精神을 宣明하기로되엇다 이리하야 川越新中國大使는 右有田外相의 聲明에 실린 友交的精神에 立脚한 訓令을 携帶하고 六月廿日 中國에 赴任하야 國民政府와 具體的交涉을 開始할터인데 이러기爲하야 北中密輸問題及 停頓해진 日中外交問題의 後期의 推移는 日中外交에 新生面을 啓할것으로 極히 注目되는바이다

日印通商改訂交涉

【東京電話同盟】日印通商條約改訂交涉을 卽開하자는 日本政府의 督促에 對하야 英本國政府는 印度政廳과 協議中이든바 遲滯로서 從來 再三 回答을 遷延하고잇던바 二十九日 藤井代理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英本國政府도 드되어 去二十八日 日印通商條約改訂交涉을 印度에서 開催하고 日本米津참事官과 印度政廳當局間에 草案을 調整하야 倫敦에서、正式調印을 하는데 對하야 異議가 업다는 旨를 通告해왓다 따라서 有田外相은 이미 시무라에서 避暑中인 米津總領事에게 對하야 訓令을 發하야 明年三月三十一日로써 失效가되는 現行日印通商條約改訂交涉을 印度政廳當局에 對하야 卽開케하기로 手續을 取하엿다

파라과이國에 軍部革命

【부에노스아이레스二十九日發同盟】프랑코大佐를 首班으로 파라과이 革命政府가 樹立된以來 三個月을 나서지안해서 파라과이國內에 착코戰爭의 英雄 유스카리바아 將軍을 中心으로 한 軍部革命이 起하엿다고 傳한다 叛軍은 到處에서 政府軍을 擊破하고 首都아순시온市으로 進擊中이라고한다 但 確報는업다

全廣西軍에對해 總動員을命令!

中央에서도大軍을動員南下 內亂化한中國風雲

【廣東三十日發同盟】廣東滯在中인 李宗仁氏는 白崇禧氏에게命하야 二十八日 全廣西軍에 動員을 命하엿다 白崇禧氏自身이 動員을 指揮하기爲하야 三十日 飛行機로 南寧에 歸還할터이다 廣西軍은 右動員令에 應하야 全軍을 二分하야 正規軍의 一部를 柳州에 머물게하는外 主力 軍第七軍을 先頭로 省內各軍은 桂林으로同하야 移駐中이며 一方 全省에 亘하야 民團軍의 非常召集을 行하고잇다 最近 四川南部中央軍三萬이 貴州에 들어가고 또 이와 交代로 貴陽一帶에잇던 中央軍十三、二十三、九十三、九十九各師는 江西省으로 向하야 南下를 開始하고 一方 貴州로부터 召還된 陽廣駐屯의 湖南軍과 省西駐屯의 中央軍 敎導師는 湖南東部에 集結하야 東北兩方面으로부터 廣西省에 重壓을加할形勢에 잇서서 廣西軍 今回의決意는 이에備할것으로보인다

阿片諮問委員會에서 堀田氏日本立場確言

【주네브二十九日發同盟】阿片諮問委員會는 二十九日午前 聯盟事務局에서 開會하야 中國의 阿片取締問題에 關하야 日本代表 堀田正昭公使는 日本政府의 立場을 再聲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日本政府는 [illegible]에對해서는 一片의同情을 示하지안는다 從來 取하든措置가 不充分하다면 다시 他의手段도 考慮할수가 잇슬것이다

리드로스氏 卄一日上海發 再次日本訪問

【上海二十九日發同盟】英國政府經濟特使리드로스氏는 夫人、秘書同伴 三十一日 엠프레스카나다號로 上海出發 再次 日本訪問의 途에 오르기로 決定하엿다 同氏는 來月二週間 日本에 滯在하엿다가 上海에 歸還할豫定이다

小國側共同陣으로 緊急理事會召集?

英佛姑息手段水泡化

【주네브三十日發同盟】亞爾然丁代表로부터 總會召集의 要請을 受한 聯盟事務局은 벌서 英佛兩政府와 非公式商議를 開始하엿다 一九三五年 十一月十一日의 聯盟總會에서 緊急事態가 發生할 境遇에는 卽時 總會를 再開한다는 旨를 明示하엿스므로 總會議長 理事會議長과 事務總長이 協議한 結果 亞爾然丁代表의 要請에 基하야 結局 總會는 召集될터이라고 豫想된다 勿論 手續關係로 特別理事會 直後에 總會를 開催하게 되기는 多少 困難하고 또 議事內容도 極히 重要하므로 聯盟 各國政府가 對策을 檢討할 期間을 주기爲해서 總會召集期日은 幾分遲延할 것으로 보인다 但 英佛兩國政府가 九月의 定期總會까지 現狀維持主義로 나가려는 見地에서 總會召集을 拒否할 境遇에는 特別理事會에서 亞爾然丁代表를 支持할 小國代表의 共同戰線이 表示되어 亞爾然丁代表를 支持할 것으로 보이므로 緊急理事會召集은 不可避하리라고 解釋된다 이리하야 現狀維持로 一時를 彌縫하려하던 英佛兩國政府의 對策은 失敗에 歸하고 國際聯盟은 制裁의 善後策과 根本的改造의 重大局面에 [illegible]

英伊商議開始? 英閣議意見一致

【倫敦二十九日發電通】英國內閣은 二十九日午前十時卅分 下院에서 閣議를 開催하야 對伊制裁의 善後措處에 關하야 여러가지 協議를 遂하엿는데 閣議에서는 伊에 問題解決의 爲하야 商議를 開始하는것의 得失如何로서 閣僚의 大多數는 伊太利와 速히 어떠한 諒解를 遂할 必要가 잇다는것을 主張

伊太利政府의 對理事會方針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聯盟理事會의 開會를 압두고 外交機關을 通하야 英佛兩國政府와 자조折衝을 거듭하야

一、理事會에 에디오피아代表를 出席시키지안흘것
一、制裁案을 撤收할것을 要求하고 以上의 條件에 關하야 英佛兩國政府가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어떠한 保障을 與하지안는限 特別理事會에 代表를 不送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伊太利政府當局은 二十九日午後 以上의 方針을 宣明하야가로되 에디오피아帝國倂合後의 情勢에關해서는 外交機關을 通하야 聯盟各國政府와 折衝을 遂하고잇는데 特別理事會에앞서 情勢緩和에 關하야 聯盟各國이 어떠한 保障을 與하지안는限 伊太利政府로서는 現在의 政策을 維持할밧게업다 特히 聯盟各國政府가 九月以降까지 制裁案을 實施할境遇에는 事態의 急迫은 未免할것이다 英國軍增援隊가 아디스아베바市에 駐留하는것을 承認한 事實에 徵하더라도 明瞭한바와가티 伊太利政府는 終始 和協的態度를 表示하고잇스므로 聯盟各國政府도 制裁案을 撤收하는것이 至當할것이다 [illegible] 有力하야잇다 但 伊太利와의 [illegible] 이點에잇서서英佛의 交涉은 難關이 잇슬것이 豫想되고잇다

亞爾然丁代表 聯盟總會召集要請

【주네브二十九日發同盟】亞爾然丁代表기나스氏는 今日午後一時 아브놀事務總長과 會見하고 聯盟總會召集에 關한 本國政府의 通牒을 手交하기로 決定하엿다 右通牒에서 기나스代表는 聯盟總會는 一九三五年十月一日以來 아직 會議를 閉會하지안코 單히 休會되어잇는데 不過하다는 旨를 指摘하고 特히

一、伊太利政府에 對한 制裁案의 善後措處
一、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帝國倂合의 結果에 基한 新情勢의 檢討
一、國際聯盟機構改組

의 三項目으로된 議題를 提出하고 至急 總會를 要求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아브놀事務總長은 以上의 通牒을 接受하는同時에 總會議長代理 베네슈外相에게 通牒正文을 移牒하야 三巨頭協議의結果 總會를 召集할與否를 決定할터이다

英政府驚愕 亞政府要請에

【倫敦二十九日發同盟】亞爾然丁政府가 突然 聯盟總會召集을要請하엿다는 報道에接하야 英國政府當局은 不少하게 驚愕하야 卽時 佛國政府其他와 協議를遂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英國政府는 獨逸政府로부터 回答을 接受하지아니한 關係上 伊太利政府의 制裁案에 關해서도 可及的 現狀維持策으로 一貫할意向이라고 解釋되는데 『시티』側에서는 緊急總會의結果 制裁案이 撤去되면 貿易도 正常化할 것이라는 見地에서 亞爾然丁政府의 措處에對하야 好感을 示하고잇다

人事·集會

▲金醞仁氏(女醫)開業人事次來社
▲崔 卓氏(滿洲國奉天日本領事館副領事)赴任人事次來社
▲朴允進氏(中央佛專講師)釋尊誕降記念終了人事次三十日來社
▲李甲得氏(佛敎中央敎務院)同上
▲李奎載氏(鮮一紙物專務)三十日午前二時 齋善洞九九番地 自宅에서 喪配
▲金聖基氏(法政新聞社京城北部支局長)新任人事次來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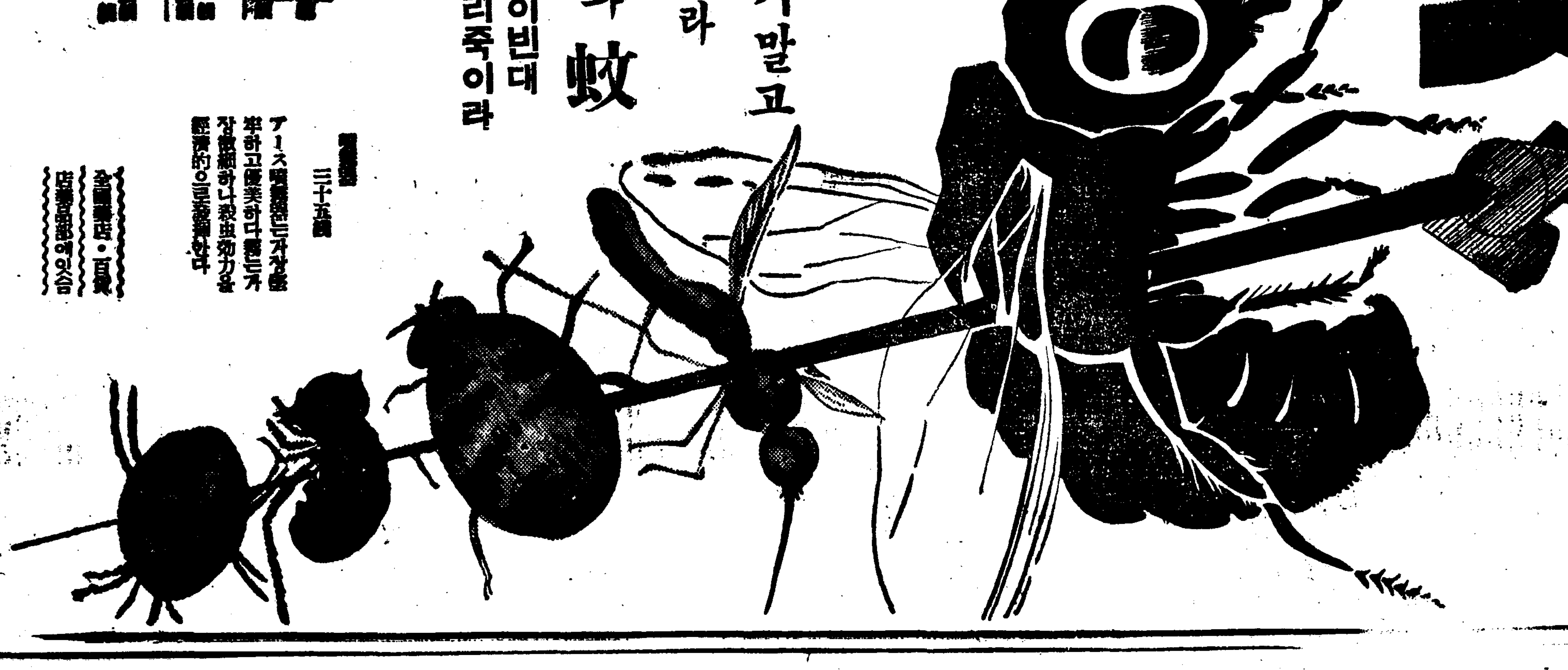
八面鋒

◇六月一日을期하야 日中國交調整에關한 重大聲明을 發表하리라고。
◇有田의處方이 三原則과어떠할는지 有效無效는 두고보아야 알일。
◇馬場財政을 大藏省에서 再檢討한다고。
◇他場이아니고 本場이니가 評價에誤算이 적을것은 無疑하나 自畵自讚만은 禁物。
◇西南懷柔에失敗한 蔣介石、武力으로서 威脅해보랴고。
◇胡漢民은 눈을감엇스나 陳白兩將이 눈을뜨고잇스니 괴로운노릇。
◇鐵道레루를먹고 자갈을먹는버러지가 또發見되얏다、그일홈은日 鐵道省工務局長。
◇朝鮮式으로 命名하면、「二十世紀률가사리」라고 해둘가。

日本北中增兵 軍用列車爆發企圖

二十九日午后八時十分天津附近에서 車輛破損馬匹被害

【天津三十日發同盟】中國駐屯軍發表=二十九日午後八時十分頃第二回交代兵北平部隊가 搭乘한軍用列車가 天津特別第三區北方약(天津南方約四十米突)에 達한때에 突然軌道에 裝置된 爆藥이 炸裂되어 列車車輛一輛이 破損되고 馬匹에損害를 發하얏는데 脫線은 免하고 多幸히 死傷者는 업섯다 駐屯軍은 卽時 中國側의 立會를 求하야 現地調査中이다 本件의 眞相에 關해서는 極力搜査를 行하고잇는 中이나 前後事情을 綜合하야 생각건대 今回事件은 北中增兵을 妨害하려는 北中陰謀라고 생각한다 目下 日本軍當局은 此種不祥事件을 防止하야 日中親善을 圖하기爲하야 萬全의 警戒中이다

強力殺虫劑 アース
日英佛伊 專賣特許
寸時를다툽니다
初夏에는여러분의家庭에파리모기等의害虫一匹이때를만낫다고제마음대로날고뛰고侵入하여올때입니다
危險한病菌을撒布하는지失眠을妨害하며더욱여러분의貴重한血液을貪吸하는무서운놈입니다
危險합니다寸時를다투어곳退治하시라
日本一强力殺虫劑アース와アース噴霧器를가추어두면항상淸潔明朗한家庭이됩니다
날니지말고 죽이라
蠅과蚊
집진득이빈대 모조리죽이라

定價 特製 四十錢 罐入
噴霧器 三十五錢
アース噴霧器는간단하고優美하다霧는가장微細하나殺虫効力을經濟的으로發揮한다
全國藥店·百貨店化粧品部에잇습

警察機構大改革과 組織擴充을企圖

內容 監察委員會新設、警察界綱紀肅淸 / 四道에刑事課獨立、警察署를增設 / 陣容改編後의警務局方針

경무국에서는 전중(田中)신국장이 취임한이후 이번이동에 다시보안(保安)경무(警務)량과장의 갱질(更迭)을 보고 각도의경찰부장은 거이전부가 신진을배치하엿는데 이것을계기로 경무국에서는 전국장시대부터 계획중이든 경찰긔구(機構)의 개혁과 경찰조직의 확대강화를 도모하고저 방금 구체안을 조사연구중이라한다

그리하야 우선명년도예산편성기까지에 구체안을 맨들고저 방금준비중이라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一、경찰관계만은 일반행정과분리하야 감찰(監察)제도를 실시하되 예산관계가 잇스므로 명년부터는 경무국에 감찰위원회를두고각도에도 감찰위원회를 두어 감찰사무를 보게하야 경찰계의 강긔숙청을 도모한다

一、형사경찰의 확충을 도모하기위하야 현재 경긔도에만잇는형사과를 그조직과 인원을 확충하는일방 평남경남북 함남의 네도에 위선형사과를 독립식히고 이후매년예산이 용납되는대로각도의 형사과전부를독립식히다

一、고등경찰은 금후도외사경찰을 점차확충식히는일방 사상경찰에는 재래에는 전연고려하지안튼우의사상취체를 강구할것

一、소방서의 신설—이것은 평양(平壤)부산(釜山)등의 대도시에서 요구가잇슴으로 이에 대한국고보조를 고려한다

一、이외에 경찰의일반적확충으로는 평양과 부산에경찰서하나씩증설할것과 또시의 팽창가타에반하야파출소、주재소등의 증설로인원의증가등이다

이와가티 긔구의개혁과 확충등으로 이에관한경무국의 명년도예산은 상당히거액에 달할모양으로 어느정도의실현을 보게될는지주목된다

變心한妻에게 "無言"의抗議

奬忠壇에自殺未遂者

『야속한자여 그대의이름은 남자라』하는연극일막을 자긔손으로 실연한사나히가잇다 이십구일오후두시반쯤되여 장충단(奬忠壇)공원 소나무속에서 『크레졸』을 먹고 자살하려고 고민하는사나히를 지나가든학생이 발견하야 곳 소관본정서에 통보하는일편 부민병원에입원식혀 응급치료중이라는데 그는현재례지정(禮智町)이십번지 고소회(高所回)집에머물고잇는 조성원(趙星元)(三〇)이라는데 그는고향인 황해도장연군대구면(黃海道長淵郡大救面)에 자긔의안해를 혼자두고사월달서울로 올려와서 안경장사를 하면서 지난동안 자긔의 안해가 다른사람과 정드러울듯고 이때 처에게 버림바든 울분하야보든바 갑지안흔 소식에타는가슴을 엇지할줄 모르고 애쓰든차 끗끗내『크레졸』에생명을밧치고『무어의향의』를남기려고하엿든것이라한다

金銀時計 百餘點盜難

統營署犯人嚴探

【釜山】 지난이십구일오전두시부터 동시까지에 경남통영군통영읍성남동(統營邑城南洞)시계상(時計商)매본용조(梅本勇助)점방 진열장유리문을 교묘히열고 금은회중시계와 각종시계등 일백이십사개 시가일천오십오원되는것을 절취당한것을 아침에이르러알고 통영경찰서에 계출하야 왓는데 동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을하야서 팔방으로 수사하엿스나 아직까지 범인을체포하지못하엿다한다

길에서불작난 하지말일

이십구일 오후네시오십분에 시내교남정(橋南町)십륙번지 압에서 그번지 소림양복점(小林洋服店)점원 리정우(李貞雨)(一二)는 불을 가지고 작난하고 잇다가 그때 그곳을 지내가는 경성우편국 자동차에 바치여 을혼편발과 다리에 약일주일 치료할 상처를 입엇다

朝鮮放送協會總會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에서는 삼십일오전열시이십분부터 부내정동정 그협회안에서 제십회정긔총회를 열고 십년도사업보고와 결산보고를만장일치로 승인한다음 리사(理事)의 보결선거에 들어가서 의장의 지명으로 이삼명치(伊森明治)씨를 추천한후 열한시반에 폐회하엿다

雨雹마진賭博꾼들

金塊密輸事件捜査網의副産物 / 紳士、妓生四十名檢擧

이십구일 오후 열한시경에 시내 종로서(鍾路署)사법계에서는 형사대가 총동원이되여 시내에 잠복해잇든 금괴밀수단의 일파를 잡으려 각방으로 대활약을 하여엇든바 뜻밧게 사십여명신사 마작도박단이 그수사망에 걸려들엇다 즉 시내 관수정(觀水町)오십팔번지의 구호 그전긔생이던 조우식(趙宇植)의방과 시내 안국정(安國町)일백오십사번지 천금(千金)구락부등 여러곳에서 의사、긔생、회사지배인、광산업자등등 사십여명 가운데 이십팔명을 붓잡어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인데 체포되지안흔 범행자도 계속하야 붓잡아올모양으로 경찰서에서는 모조리 엄중처벌할터이라한다

雨處에土兵團

【咸興】 이십팔일 함남도경찰부 착전—십삼도구에 살고잇는김규연(金奎淵)등 오명이 지난이십일 식량을 가지고 마강(摩江)뭐에서 사금을 채취하려고 출발하얏다가 무송현중양리(撫松縣仲陽里)에 이르럿슬때에 계통이 불명한 토병단약륙십명이 나타나서 여섯사람을 모다 타하야 중상을 입힌후에 가젓든 식량을 모다 빼앗어가지고 갓다

◆……이십륙일 오후여덟시쯤 십사도구요방자(十四道溝要房子)에사는 동포김대근(金大根)의집에는 문명군(文明軍)의 일단오명의 무장단이 나타나서 동지에 살고잇는 이주동포의집 십여호를 모다 습격하야 일원십이원 금반지네개 기타식량등을 모조리 빼아서갓다는데 이러케 수시로 처처에 토병단이나타나서 이주동포에 박해가 극히자심함으로 인심은두도로흉흉하야 피난가리의동요긔세를보이고잇다

梨泰院骸骨挾雜 被害額四萬圓豫想

龍山署關係者繼續嚴重取調 / 事件은某方面에擴大?

조간긔보=리태원공동묘지(梨泰院共同墓地)의 무연고고총(古塚)의처리를 마터보고잇는 경성부리태원공동묘지사무소의 주임겸 간수장(看守長)으로잇는 그동리륙십사번지 리홍순(李鴻淳)(四九)과 그의처남이요 또 그사무소서긔인 리순구(李舜九)(三〇)와 밋그묘지에서 쓰고잇는 소위상용부(常用夫)라는 시흥군수암면화정리(始興郡秀岩面花井里) 태생 정재철(鄭在喆)(三一)외 열일곱명 도합스무명을 지난이십구일 룡산서(龍山署)에서 붓잡어다가 문초하는중에잇다함은 본보조간에특보된바어니와 그후문초에따라 그들의죄상은 자못놀라울만큼 들어나고잇다

즉 리홍순은 그공동묘지의주임겸간수장으로 잇는동안 지난 소화오년사월에 그묘지가 폐지되는동시 최근에어르러는 시가지계획령발표와아울러 어쪽무덤 사만삼천긔(基)를 유연자(有緣者)들에게 각각이장하라는 부의 공고(公告)가 발표되자함께 만약 화장하는사람에게는 어린이들의무덤은 이원、어른것은 삼원식을각각 주고또 이장을하는 사람에게는오원오십전식을주기로 되여서 지난사월초순에경성부윤의 일흠으로 이통지서를각각 유연자에게 발송한것을 긔회로하고또 부에서 작년팔월부터 그묘지에 림시로 무료 화장장(火葬場)을 설치한후 화장을 해주어오다가 올사월부터는 이상과 가티그화장비용으로도리혀 돈을 지출하게되엿슴을다시 긔회로삼어 전긔리홍순이규정을 자긔혼자서 주물러터분 리고 그곳에서 화장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삼원으로부터 최고십오원식을도리혀 바덧다는것이다

지금까지 리홍순의 손을 거처 화장된 총수는 사천긔 남즛한중 십중팔팔은 이상과가튼 소위 화장료금을 무리하게 바더온것이라 적어도 도합 삼사만원은 그들이 사기해먹엇스리라고한다 따라서이크나큰 돈은 모다 리홍순이가 대부분 집어먹고 겨우약간의 돈으로 자긔의처남 리순구와 멋그의 수족과가티 부리는 인부들에게 난호아주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입을막어온것이라한다。이사건이 발각되자 함께 룡산서에서는 밤낫을 가리지안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조를 하는중이다。그러고그의자백에 따라서는뜻밧게 인물들도련좌되여잇는사실이 드러날것으로보혀 여러긔장되여서 활동을하고잇다。(사진은리홍순)

月給四十圓에 蓄妾이數名

李鴻淳의生活裏面

별항 리태원묘지를 둘러싸고 이러난 의옥사건의 장본인되는 리홍순은 어떠한사람인가? 그는 본시 평양(平壤)태생으로 일즉이 경성부 측량기수(技手)로잇섯든사람인데 원체 재산이업는 빈약한 처지로 겨우묘지사무소에서 일보고잇는 간수장의 월급으로 사십오원박게못바더 오든터이엿스나 일상 남달리호화스러운 살림을 하면서 축첩도 여럿을 햇든일이 잇고 또 일상 가정살림에도 소위 안잡재기를 두서너사람식 부리며과연 백만장자를 릉가할만한 호화스러운살림을해오든터이라한다

鑛山家四名召喚 金炳旭은收容

現職警官關聯證據分明

【平壤】 평북벽동모광산(碧潼某鑛山)에 관련되는 횡령피의사건을 수사중 의외에도 신의주서에서 적발하게된 금괴밀수사건은 현직경찰관까지 합류한증거가 려연하여 신의주서에서는 사건을 중대시하고 철저적추궁을 하기로 태도를 결정하고 관계경찰관들이 평남도근무이므로평양지방법원검사국에 수사를 이첩하여왓스므로 검사국에서는 대판(大阪)검사가 김병욱(金炳旭)을 즉시 구속하야 평양형무소에 수용하는동시에 이사건에관계잇는 광산가(鑛山家)모모등네명도 이십팔일 소환장을 발하여 취조키로되엿다 어잿든 사건이사건인만큼 검사국에서도긴장하여 사건을 추궁중에잇다

京城府衛生課長 龍山署出頭密議

府當局의責任도難免

이뜻아니한 의옥사건이 발생됨과동시 룡산서에서는 곳 이사실을 도경찰부와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보고하는한편 경성부위생과(衛生課)로 알리여 적야(荻野)위생과장과 장시간의 밀의한바가 잇섯고 또삼십일아츰에는 적야과장이 룡산서로가서 서장이하 사법주임등 관계자들과 구수밀의한바가 잇섯는데사건은 아프로 널리확대될것으로확신되여서 크게주목된다한다

蓬萊町에交通事故

이십구일오후 네시쯤에 시내봉래정(蓬萊町)이정목에서 봉래정 사정목 십이번지에사는 김평수(金平壽)(三)가타고가는 『리야카』에 시내청엽정(靑葉町)삼정목에거주하는 서은룡(徐銀龍)(三二)이가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서로충돌하야 전긔서은룡은 뇌진탕을이르켜 현장에혼도한것을 서소문정(西小門町)전중환(田中丸)병원에 떠메어다가 응급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水王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平壤署檢擧事件 秘密結社의一種

外部와連絡하야讀書會組織 / 中心은教役者의子弟

【平壤】 평양서고등계에서 목하검거취조중인숭실학교사학년생도다섯명과 졸업생한명은 긔보와가티 계속 취조중으로 외부와련락을 취하여가지고 비밀결사의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고 적색『팜프렛』을 사서전등을 탐독하든것으로 판명된모양이나 아직 사건이 어느정도까지진전될지는 알수업다 오직 신사불참배 문제로 긴장햇다가 문제가 일단락을 고하여잇는 이때에 사건관계학생들이 대부분 목사、장로들의 아들들이오 겸하여 현직교역자들의 아들로서 반종교운동의 비밀결사를 조직햇다는점에서 더욱 일반의 관심을 가지게하고잇다 이삼일중에 사건의 정체도 판명될터이라한다

開城의名物 浴佛節盛況

求景온鄕村婦女三萬突破

【開城】 불탄봉축(佛誕奉祝)의『사월파일』하면 전조선에서 개성엔 둘도업는 대중행락(大衆行樂)의명절날이다 그래서 금년은 특히 이날을 더굉장히긔념하기위하야 이십칠일부터 이십구일까지 삼일간을 봉축일로 정햇든바 시골각처에서 구경온 부녀들만도 무려 삼만명을 초과하얏섯다。낫에는 백상행렬(白象行列)과 함께 농악소리가창안을 흥겨웁게하자 물밀듯흘러드는군중은 갈작스레 인파를 일우웟스며 밤이면 남대문네거리로 동들의 꼿수를노차 휘황찬란한 그밋흐로 웃고몰려다니는그들은 모다 축복바든 선남선녀(善男善女)와가텃섯다。

死兒屍密葬

【淸州】 청주군남이면외천리(南二面外川里)에사는 문주하(文周夏)(三七)는 지난이십구일오후 십일시경에 병사한자녀(一)의 시체를 매장허가증도밧지안코 사망한후 이십사시간도 지나지안흔 익일오전이시경묘지가아닌 외천리산에다가 밀장(密葬)한것이 요조음에 발견되여 청주경찰서에서 엄중한 취조를밧다가 벌금십원의 즉결처분을 바덧다한다

開城좀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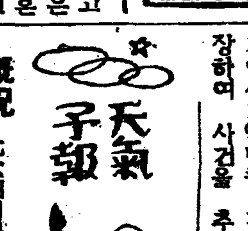
【開城】 개풍군청교면고남리(開豊郡靑郊面古南里)오구칠번지 이춘근(李春根)(十七)은 지난오월이일 오전오시경에 동면동리에 거주하는김원근(金元根)소유 자전거일대를 그집로압해서 녁죽이 훔처다가 동면동리에사는 박승창(朴承昌)(二二)에게 팔어먹은 사실이 요지음 그곳 주재소원에 체포되여 본서로압송후 엄조중에잇다한다

"朝共"全南同盟事件 第二回公判開廷

呂運鍾等四名審理

【光州】 조선공산전남동맹 정충조(鄭忠朝)(二六)등 십삼명에대한 치안유지법 위반공판은 지난이십이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안전(安田)재판장 심리로 제일회공판에 김룡환(金龍煥)일인이만심리를하고 이십구일로 연기하얏든바 이십구일오전 십일시부터 제이회 공판을 개시하야 려운종(呂運鍾)(二七) 장병완(張炳完)(三二) 박채영(朴采永)(二一) 신홍신(申弘?)(二一)등 사명의 심리를 오후칠시까지 계속하고잇다

天氣予報



概況 七六四미리의 高氣壓은 日本東海上에 퍼저그尖端은朝鮮西岸에 밋치고 七五二미리의低氣壓은 滿洲와 北滿洲에 잇서 東北東으로 進行中이다 南滿洲와 北朝鮮은개이고 그외는흐리며 九州南西部에는小雨가내리겟다

豫報 京城地方今夜는 흐리며明日도흐리겟다 京畿全臨도갓다

氣溫	
昨日最高	二六度五
最低	一一度五
今朝最低	一二度四
今日正午	二三度一

運動競技

專門庭球戰績

第十一回全朝鮮專門學校聯盟庭球大會第一日은 三十日午前八時에 加盟校 高農、高商、高工、醫專、齒專、法專等六個校의 選手入場이잇슨後 前年度優勝校法專의 優勝旗返還이잇섯고 當校法專校長佐藤氏의 開會辭가끗나자 同十時半부터 競技의 幕을열린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各校戰況은 다음과갓다

【高農】7…18【高商】勝

×	(米加 林)	2…4	(柳鶴 葛原)	○
×	(田中 村原)	0…4	(姜鶴鎬 松本)	○
×	(李鍾淳 申定鎬)	1…4	(江崎 田)	○
×	(李奎浩)	0…4	(安東 來)	○
○	(田代 青木)	4…2	(岩元 永瀬)	×

【高工】11…19【醫專】

×	(朴 久保)	1…4	(杉吉)	○
×	(安榮英 田原)	2…4	(北 垣內)	○
×	(孫澤 宮尾)	1…4	(曾我 孫沐)	○
×	(金容 愼武峸)	4…3	(金 田)	×
×	(李東燁 朴吉永)	3…4	(宋英 山口)	○

【高商】17…5【高工】

○	(姜鶴鎬 松本)	4…1	(孫澤 宮尾)	×
○	(安東 來)	4…0	(朴吉 李東燁)	×
○	(柳鶴 萬原)	4…0	(金容 愼武峸)	×
○	(憲 江崎田)	4…0	(朴 久保)	×
×	(水元 岩淵)	1…4	(安榮英 田原)	○

【法專】18…7【普專】

○	(李容 洪性)	4…1	(朴三烈 飛永)	×
×	(辛昌範 諸川)	2…4	(鈴木 盧泰)	○
○	(具田 李丙浩)	4…1	(金培 田)	×
○	(砂金 朴永壽)	4…1	(元 吉田)	×
○	(李輔虎 趙德烈)	4…0	(吳 吉井)	×

普專蹴球部 東京遠征

全日本選手權에

지난五月七、九日에行한 全朝鮮蹴球大會에서 延專을이기고 覇權을獲得한 普專蹴球部一行은 來六月十九、廿、廿一日의三日間東京서열리는 第二回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에出戰코저 監督李丙學氏引率아래 來十五日에 出征할터이라는바 一行의陣容은 다음과갓다

▲監督 李丙學 ▲마네저 金容麟 ▲主將 裵宗鎬 李相再 玄孝燮 朴奎楨 金炳禱 文二峰 李鍋漢 孔敬來 林暢植 裵宗鎬 朴孝濟 宋基命 車銘濟 ▲候補 洪完植 鄭用圭

體協理事會經過

朝鮮體育協會理事會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開催하고 總督府人事異動에伴한 會長、副會長의 後任外左의 五件을 附議決定하엿다한다

一、全朝鮮陸上競技聯盟及朝鮮庭球聯盟補助增額

二、올림픽陸上競技代表京城下車時에 歡迎會開催

三、竹內主事올림픽視察期間中事務臨時依囑

四、朝鮮神宮競技日程統制

五、贊助會員擴充

世界올림픽 代表送別

펭귄俱主催로盛況

【東京】 獨逸伯林서열리는 世界올림픽大會에派遣될 孫基禎、南昇龍、廉殷鉉、李性求、張利鎭、金容植、李奎煥諸君이 合宿練習을위하야 東京에滯在中임을機會로 在東京펭귄俱樂部에서는 이들七勇士를마지하야 二十五日午後六時부터 新宿高野屋에서 崔龍振君의司會로열리어、펭귄部長鄭商熙氏의 激勵辭가잇섯고 金正淵君의 獨逸遠征經驗談이잇서 出征을 압둔 諸勇士들의 壯途를 祝福하는 雰圍氣가 場內에 넘처 흐르는가운데 同九時에散會하엿다

府廳4 京電2

京城實業野球리ー그第十日의府廳對京電第一回戰은 三十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石井(球)大島、白石、佐藤(壘)四氏審判下에 府廳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對二로 府廳先勝

府廳 000010102—4
京電 000200000—2

◇投捕=(京電)橋本-中川(府廳) 安藤-松元

뽀ー트레ー쓰

全朝鮮固定席艇(뽀ー트)選手權大會는 明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 漢江人道橋下코ー스에서擧行하기로되엿다

第一回醫專(二코ー스)對鐵道(三코ー스)

第二回京電(一코ー스)對藥專(二코ー스)

決勝戰 零時

在京中公私間여러가지로만흔愛護를밧고또한本日出發에際하야一一히餞送하야주심은玆의깁히謝禮하옵나이다。

五月三十日

上內彦策 はま江

在京中公私並히格別한懇情을蒙하고今日出發에際하야多忙中餞送하야주신厚意를感謝하나이다今後더욱倍舊의交誼를敢望하며略儀이오나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五月三十日

嚴昌燮

현금의지혜는장래의우순

사람이 혹『그리스도』가 업시 생활할수잇다 하나『그리스도』가 업스나 죽을수는 업스며 사람이 천당과 지옥을 혹 모르는체는 할수잇스나 그러타고 천당과 지옥이 업서지는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밋지 안는자여 당신을 놀날만한것이 이것이니 죽내 생명이 구원을 엇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야 죽음으로되는것이라함이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사 그독생자를 주어 흉악한 고생을밧게하시고 마츰내 나를 위하야 죽으셧다』함이다 그러나 이는 ...

三好丹粧으로 한때의綠陰을滿喫하라

近代化粧의第一課는 산뜻하고明朗한것!

그러나ー 우리의衣裝과獨特한風景에 얼맛지못하는化粧品은 오히려憂鬱하게보일뿐입니다

×

이ー즐거운綠陰을마지하는 그대의伴侶者는누구십니까? 饒豪압헤微笑를띄고 自信잇는麗容의主人公은 도려켜보니「三好水白粉」이어섯지요

三好煉白粉 三好粉白粉 三好粉白水 三好化粧水 三好固煉白粉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포마ード 三好頰紅 三好口紅 코리아石鹼 三林一石鹼 製品五十餘種

三好水白粉

京城府昭和町一五九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③一七一七 振替京城一五九五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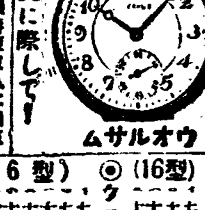
◎新春特別大賣出し!

▲見よ!驚くべきこの大犧牲・振りみ!好機逸すべからず ▲特別サービスは?…賣出中一個買上の方に洩れなく特製印章材附滿年筆(市價二圓ノ品)一本宛無代進呈! ▲36年度流行各種の新製を取揃へ何處よりも安い値段で薄利多賣主義で賣出す事 ▲特に機械優秀時間・正確なることを以て世に誇るウオルサム・エルジン大衆本位に安價で大奉仕を斷行致します ▲何よりも十五ヶ年保證券を附ける故絕對安心が出來升

特別サービス付 大賣出し開始

時間と流行の優秀・正確

(瑞西製)



◉御註文に際して!

ムサルオウ

(1)御註文は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に拂込むか小爲替又は… (2)代引は必ず內金として三割以上拂込ふ事 (3)前金註文は送料不要 代引とい…

◎クローム側懷中(五圓以上カタログ送呈)(16型) [illegible]

◎クローム側腕卷(三味・角・變型・丸型)(16型) [illegible]

◎クローム側シタバン懷中(瑞西製)(8型)(9型)(10型)(11型) [illegible]

◆18金側ウオルサム懷中(十五ヶ年間保證付)(16型) [illegible]

◎クローム側エルジン懷中(米國製)(16型) [illegible]

▲市價三分の一で ▲奉仕する大安値▼ (某外國商館破產一處分品引受整理)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뉴ー코리아레코ー드 6月新譜

流行歌 야웅!죽겟지 金愛羅

流行歌 모던鐘路 金貞九

어머님품으로

新民謠 시악씨열여들 뽕도따고님도따세 李花子

劇 有情 朴孤松

딴스 낙쟁이哲學 崔仙

母性劇 朝鮮의어머니(上下) 崔仙 朴孤松

京城本町一丁目 코리아蓄音器洋行

五月三十一日부터 午前十一時부터 六時半까지 七時半始映

料金 大衆 上 附大人三十錢 下 附大人二十錢 小人二十錢 小人十錢

廿世紀社超特作全發聲 十九世紀文學의精華 監督로ー란드V리ー 마原作

巖窟王

青春과사랑을내버리고몬테크리스트島巖窟巢에서廿餘年그리고脫獄과同時에巨萬의富貴를엇은단테쓰가智謀와縱劍을가지고에드몬한復讐한絢談! 松竹키네마社特作

영리와새색씨

싸운드抱腹卒倒에快笑篇 廿世紀社特作全發聲

漫畵 紹介

六月六日부터 二大强力番組 急急實然三六年度銀幕의大刺戟超科學戰映畵의君臨夢相에서實現된五百年後의世界』『새벽의爆擊』同時封切

仁寺洞 電光一三

朝鮮劇場

百補丸 一萬人의 一例式

僞造百補丸을注意하시요
百補丸은平和堂外에絶對無함

代金全額後拂

藥効가 廣告와 달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藥先送
服藥後
代金支拂

●修身齊家治國平天下도 爲始健康

效力絶大한 補藥을 長服하면 不老는 勿論…… 事業成功도 百倍

不老長壽·强精回春·更少年補藥

●百補丸은東西洋補藥中 最極上 第一完全 絶對特上 效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무○가 完全히 낫고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체증이 업서지고 腎氣不足이니 腎水不足이니 하는생각은 夢中에도 하지아니 하게되며 補全身 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히 更少年이 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補藥이 어데잇습니까 더욱이 當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効를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업슬것입니다 只今곳注文하시요

人生에急大問題

草木은 肥料를 주어야 茂盛하고
사람은 補藥을 먹어야 健康長壽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그나무가 엇더케됩니까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사람이性慾이줄고 氣力이업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치 悲慘하게됩니다

이런때 藥을아니쓰면 닭잡아겨글것을 소잡아겨게되며당신의몸에큰일이 나게됩니다 이런때에 百補丸을使用하시면 모든虛弱症이 根本的으로回復되고 前以上健康하고 普通健康人보다 特別히 越等한 精力조흔사람이 됩니다 實로更少年百補하야 人體改造할수잇습니다

●性慾이 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 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업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長壽못할症狀이오니 一日速히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補藥百補丸을服用하시와更少年이되시요

事實이第一

廣告면 다 廣告가아니고 藥이면 다 藥이아닙니다

廣告는 事實을 記載하여야 참된 廣告이오 藥은効力이充分하여야可謂藥이라할것입니다

代金後拂 規定及趣志

百補丸의大特效를 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만은 試服後代金을 곳잘送金하여주실人士는 官吏層이지 私民層이지 富者이지 紳士이지 無産層이지 農民이지 商工人이지 알지못하겟습니다 그러라고 누구에게던지 다後拂條件으로 送藥할수는업는 形便인故로全朝鮮道知事 全朝鮮郡守 全朝鮮面長 全朝鮮官公立學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町總代 全朝鮮百石以上秋收하는 地主에게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諸賢諸氏에게는 罪悚하고 未安하오나 商業上不得已한 事情이오니 失禮이오나 普通注文으로 해주시기를 伏望하옵나이다 後拂注文도 試服後代金을 支拂하거나 藥이不合意하면 返藥하거나 할것이고 普通注文도代金을 先金又는引換代金으로 藥을受取하엿으나 萬一이라도 或藥이 貴意에不合하시면 返藥하시고全額返金請求를하시게 規定이되여잇사오니 後拂이나 先金이나 代金引換이나 服藥家의利害得失은 꼭갓습니다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언제든지 後拂注文이라쓰고 藥代金十圓은 試服後 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보내시요 送費七十錢은郵票同封합니다 送費七十錢은 先金으로送하오니 郵票로나 振替로나 先送하여주시요 注文法은 貴氏名엽에官吏면 官名을 肩書하여주시고 富者면 地主라고 肩書하시고 百石以上秋收하는地主면 地稅證明書를同封하여주시요

普通注文法

注文書에는必히捺印하여주시요 平和堂振替五番에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先金十圓을보내주시던지 葉書로百補丸特製一劑代金引換付送하라하시오

普通注文人게特典

普通注文人게는 送料도本社負擔하고 또本社苦心發見한 專賣標手續中인 秦始皇이愛用한 九重宮闕에秘中秘로秘藏되여던 秘方藥超特强精補藥試用小一箱을 無料로添呈합니다 (期限當分間)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効의 偉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조흔 補藥인故로

藥先送하고 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 잇습니다

그러족이藥의效力이 얼마나 確實한지는 諸氏도 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이仙藥을 販賣開始한지 五個年以來벌서 先服者不知其數인대 百人이면百人 千人이면千人 이다特効하다 神効하다 更生하엿다等稱讚아니하는 사람이업는故로 本社는 絶對自信을가지고 이仙藥이 天下에第一가는 補藥으로 確信하고잇습니다

●實로累試累驗한藥인故로 이러케自信을가지고 代金後拂効力保證게약까지합니다

百補丸의藥効는左와如히 참 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爲先 手足과 下焦가 몹가티 더워집니다

二、精力이 潮水가티 每日每日느러서 事務를 自然不知中 만히보게되며 深夜엇는 徹夜하야 不眠努力하여도 翌朝에 無難히 早起하게됩니다

三、飮食을 自然히 만히 잡수시게되며 체증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 알지도 못하게 업서집니다 口味도勿論조와집니다

四、一週日만連服하면 ○가튼 性○이 不知中○竅되며 連服하면 用之不渴 精源이 如泉하며 玉骨仙風 皮膚에 주름살이펴지며 不老更少年이되며 ○○과○○두가지 人生最大의 欲望을充히 滿足하게되며 永久히 奉護한 身體의 所有者가 될것이올시다

五、連山松葉蕺을能히 세일듯 百補丸을 服用하기始作한지 五日間만지나도 몸이漸次輕快하여지며 連山의松葉叢을 能히 세일듯한 氣分이生합니다 이것은 特히 精氣蘊氣가 왕신強盛된까닭이며 몸이輕快하야지는것은 體重이減하여지는것이아니요 筋骨이 튼튼하여지는까닭입니다

六、體重이增加될 服藥前과 服藥後 體重을 다라보시요

七、몸의健康은家庭의 圓滿을回復하고○○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圓滿케한 몸의 健康 精神의健康 ○○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 和睦케하며 衰退하여가는 家運이 나날하여가는 國運도 必히挽回할수가 有합니다

奇哉●强度의動物ホルモン植物ホルモン多量含有

八、連日深夜 讀書視務하여도 翌朝에 無苦早起케됨 連日하야 每夜子正後一時 二時까지 研究視務 讀書하여도 조금도 疲勞치안코 翌朝에 何等疲勞가 無히 早起케됨 是果然百補之緣由 藥効偉大之證

身體가 虛弱하면 興旺한家運도 多煩한家務에못이기여 敗家케됩니다 明實히必要한것은 健康二字뿐입니다

九、百補丸은 完全圓滿한補藥이됨 補藥中에는 或一部臟器만 補하는藥도 許多하야或人有効 或人無効하지만은 百補丸은 人體百部를 全部理想的으로 補身하는 羣藥이요 二十餘種 珍貴한原料가 配合하야잇는 神人道師葛玄眞人의 救世的秘方藥입니다

十、腎氣가 大增進되야 ○○의回數가 不可離之數로 增加됨

十一、每日 公事 私事間 處理件數와 執務時間이 不識中自然延長됨 身體와 精神이 疲困하지아니하니가 自然히 研究와事務處理를 만히하게됩니다

十二、世上을 樂觀하며 亂麻가튼 事件도 能히容易하게 處理하게됩니다 大膽히 不平한일과 섭섭한일을 當하여도 마음과 머리에화가나지아니하고 참으로활착히 完全히무슨일이든지 判斷됨으로 世上에悲觀할바업고 무슨일이던지 樂觀됩니다

十三、血色이 조와지며 얼골에주름살이 펴지며 젊어지며 玉骨仙風이됩니다

十四、힘이생김니다

十五、사람이침착하고점지안어짐니다 ●神經衰弱가튼것은멀리멀이감니다

十六、長久連服하면 久淋도淸淨됨○○後疲勞不覺은 참신기기묘可驚其効

十七、淋疾根治後는 困陽키爲하야 必히 百補丸을 服用하여야합니다

●健康한身體라야 世上에서 살맛도잇고 健康한子孫을 得합니다

●百補丸은 絶對的 一時的 効果를 내는藥이아니고 道師神人 葛玄眞人의 秘方藥입니다

葛玄眞人은 道學者들은 다잘아시는 道師입니다 代金特價一劑拾圓·重用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周旋人게一劑無料進呈

朝鮮總督府警務局衛生課檢查 販賣許可劑

神人道師
葛玄眞人
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一平生無病健康長壽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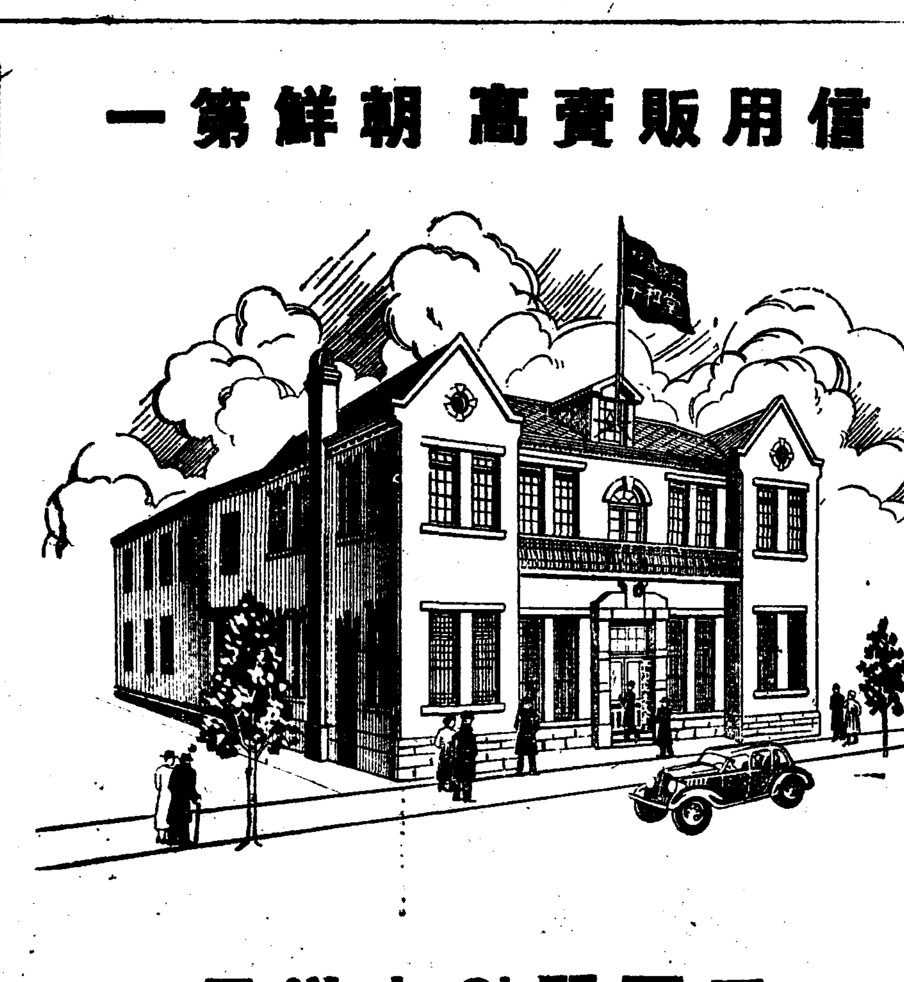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六)(前中央日報社跡)振替京城五番 ● 電話光化門六三三一番

販賣特約

地方의 特約히 信用確實한 病院이나 醫生이나 特別히 信用確實한 藥局이나 洋藥局에 特約販賣를許함(有特別有利하신條件)(一年後라도實績良好한) 特別히 實効確實한 藥인故로 醫師나醫生에게 特約販賣를目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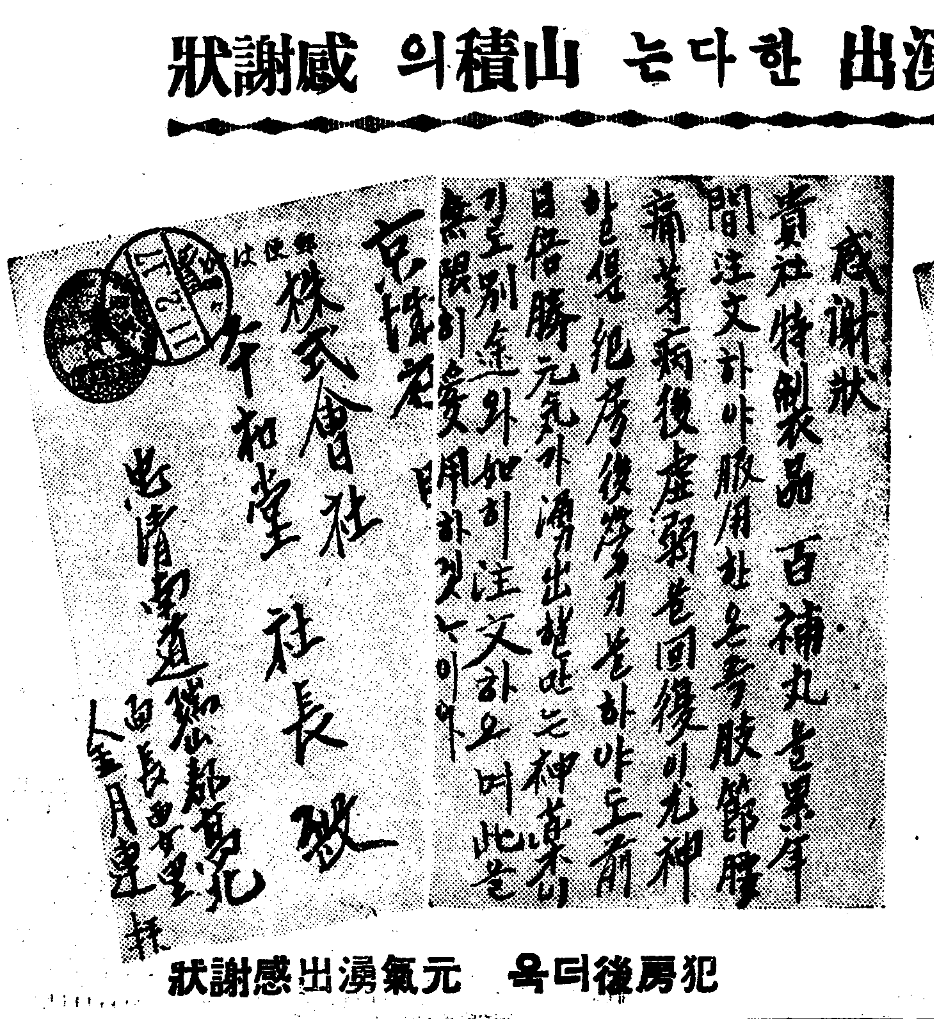
信用販賣高朝鮮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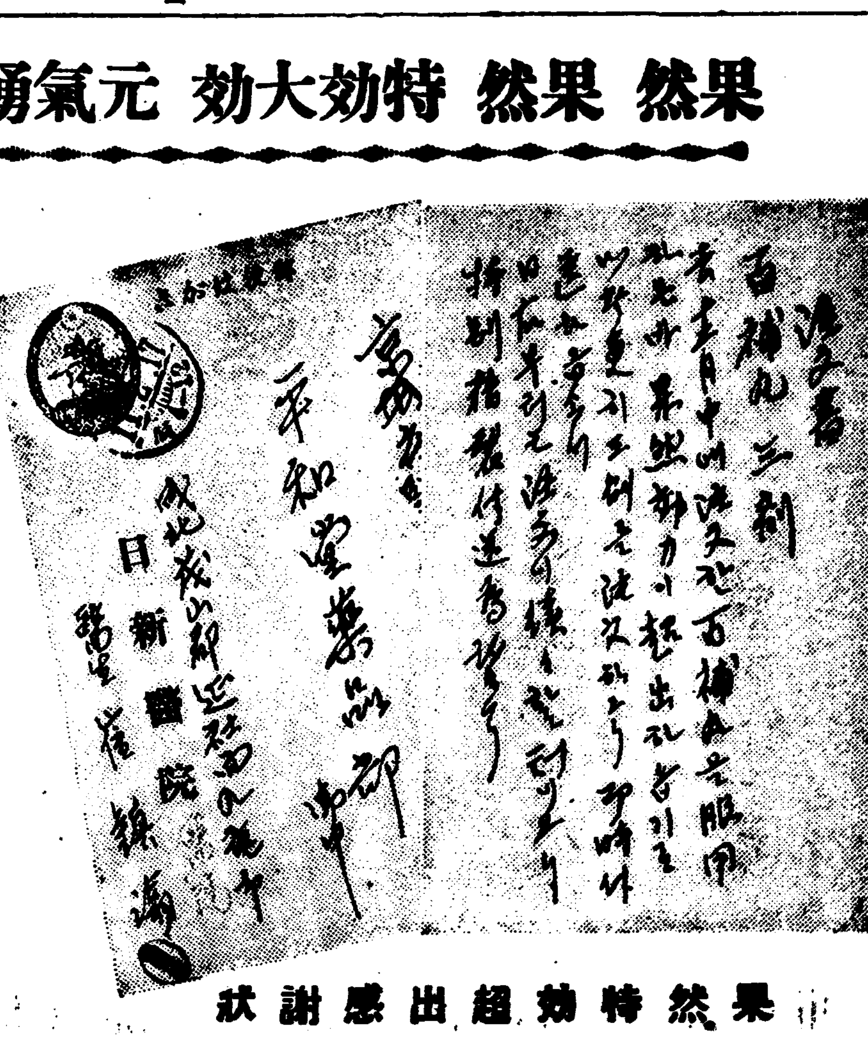
三百間의大洋屋

果然果然特効大効元氣湧出한다는山積의感謝狀

事實로 조흔 補藥은 大衆의 眞正한 感謝를밧는다



犯房後더욱 元氣湧出感謝狀



果然特効超出感謝狀

초여름의 미각

고량마다 금물결! 닥처올 보리밥풍년

쌀밥도 영양에 드러 이만못하다 지화자부를『비타민빼』

벼머리의 비린이삭이 금물결을 치며 벌써부터 뛰어버리는 바시어 먹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케 장찬은 버리ㅅ고개도 이제는 다 넘은듯가안악네들도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거치른 보리알이 아모러키로니 옥가리 희고 비단결가티 보드러운 입살을 당하겟습니까만은 업는사람들의 입에는 보리밥도 하늘것습니다. 더구나 영양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리가 오히려 쌀보담도 멧배 더 조합니다 귀한 집의 아들따님들도 보리밥을좀 잡수어 보십시오. 몸을 위하야 먹는 밥을맛보다는 영양을위로 가는 것 어떳습니까?

쌀에는 비타민 빼가 적기때문으로 쌀밥을 먹는때 성들에게는 각긔(脚氣)란병이 따라다닙니다. 각긔를알아본 사람은 잘 알겟지오만은 병중에도 가장 귀찬코 성가신 병이올시다. 그러나 비타민 빼가 만흔보리밥은 각긔를 예방도 하려니와 치료도 하야 훌륭한 약이 됩니다. 그뿐이아니라 담배질도 쌀보담보리가 만허서 본래 담배질이든음직을 만히 먹지 못하는 우리네게는 그역시 귀한 영양을 이룹니다. 또섬유(纖維)도 쌀보담 보리가 만허서 변비(便秘)잇는 사람에게 조흔것은 물론이요 로인네나 애배인 부인네에게도 조흡니다. 이런 점으로나 저런 점으로나 영양에잇서서는 쌀이 못 따릅니다. 그만큼 일부러라도 쌀을 버리고 해먹을 경합니다.

물론 꽁보리밥은 알맏해도 맛이 나쁘니까 될수 잇는데 까지는 쌀과 석거 밥을 해먹는 것이 해롭지안습니다. 적어도 보리반 쌀반이 이상적 비례이나 보리싸분 쌀싸분의 비례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이상 넘어 적어서는 별 효력이 업서 집니다. 그런 보리밥만은 차라리 순전한 쌀밥만도 갓지 못 합니다. 그러고 보리를 쭈쭉 삶아서 다시 보니밥을 짓는데 그러케 해서는 물에 약한 비타민 빼가 다업서저 버리가 쉽습니다. 또 그러타고 ……… 밥사어 먹게맨들어 노흔 것들은 조호냐 하면 그역시 가공(加工)하는 동안 모든 자양분을 일케 됩니다. 그중에서는 말린보리(乾燥麥)가 제일 낫습니다. 그런 보리를 사다가 삽숫도록 하서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로 섬섬 끠어 갈듯한 푸성귀것처리에 옥다란 막고치장을 켜드리어 노치 안습니까? 거긔다가 꽁보리밥을 지어서는 비비어 먹지 아습니까? 이것이 우리네의 소박한 여름취미가 아니오니까? 비록 양장에 향수를 피우고 다니기로니 제가어듸서 나서 어떠케 자랏겟습니까? 한번 녯취미를 잇지 안코 맛보아보는것도 그럴듯한 노릇입니다 그러케 해노코 스스럽지안한 손님을 청하는 것도 재미잇습니다. 단지 보리만으로는 끈긔가 업서서 호러지기 쉬운까닭에 그것이 험입니다. 그러지 말고 감자를 잘게썰어서 한께 밥을 짓는다면 그런 념려가 조금도 업슬것입니다.

날이더워오면 땅바닥잠

부디말일 큰병을산다

여름밤 더위를 못이여 시원한 곳을 차즈려하는 사람의 상정이다 그러나 호화스러운 상류계급에 처한이들은 서늘한곳에 피서를 가든지 그러치 안흐면 널은방도 갑갑하다고하야 압뒤ㅅ문에 서늘한 발을 느리고 친대우에서도 덥다고하야 부채질을하고 누어잇는 그반면에 흙과 갓갑 대팔밖에 빈대, 배룩등 흙것을 견디다못하야 행장을 걷어지고 피서지로 가는것이 대팔을혹아니면 좁은거리 복판이다. 그러면 이들의 피서지가 의학상으로 그들의 보건상 밋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어대 미관상 또는 풍긔상 자미업는것은 다시 말할것도업고 그들의 보건상관계중에 일대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수가 업다. 이제 그밋치는 낫분영향을 들어 말하자면 아래와 갓다.

一、류마지스(슉칙당)는 습기가만흔곳에서 흔이발생하는 병인데 맨땅에서자는사람이 으 죽이나습긔를 만히밧으리까 그래서 가슴과엽구리가 땅땅맛치고결립니다

二、전염병 에걸리기쉽다 그중특히 어렷은 맨땅에서자는 사람에게 가장만히 발생합니다 땅이참으로 위장가다루가 만흔 대 이병이전염심하야 리질이되고 도어려사람이한끗에서 가치 모혀자는만큼 그전염도 아주빨리잘됩니다 그외 발진지부스가 류행할때는 이와가튼하류계급에 가티 모혀잘때그배자의이(虱)가 다른사람에게 올겨가면 꼿그병이전염됩니다 특히 어린아희에게 한하야는 갓혹이나 여름에 배앓이를 만히하는데 그찬땅에서 재워서 이병이 생기면낫지도 안코 결국 이질에걸려 생명을 만히잃는다

三、부인병 외원인 소위 민간에서 말하는 랭병은자궁내막염인데 이병은 자연을따심하고 낫지안습니다 다시재발합니다 대서자면 다시재발한니다가도 찬대하증과가튼 자궁병잇는이는특히 주의하서야합니다

四、모기에게 물리(학질) 『마라리아』에걸리기 쉽습니다

五、감긔에원인 저녁에는덥다가 새벽에 잔드릿슬때에는 한긔운이들어 갑작이급변한 으로 체온조절을 잘못하야 감긔에걸리기쉽고 도감긔에걸리면 조섭하기가 어려워 폐염기든병에 도걸리기가 쉽습니다 특히어린애들은기침병을 엇기쉽고 특히배 앏허기든병도 경열되기쉽고 따서치료도 곤란합니다。

우에말한것은 직접원인을 대략하여지만 그외에 간접으로 생기는병은 얼마나 만흘지모릅니다

몸피곤할때는 커피ー보다 록차

커피ー、코코아는 흥분이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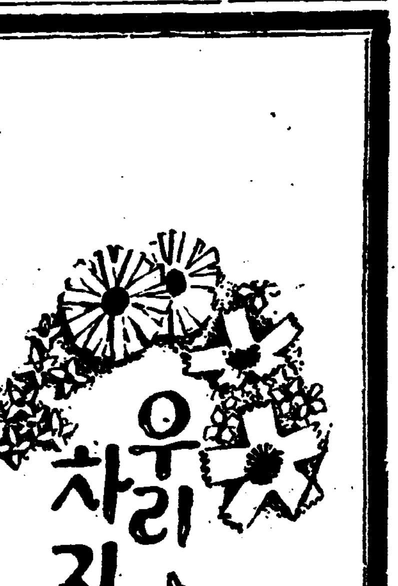
『목마를때는 냉수나먹지』 이것은 벌서 녯말이되고만 새올시다 시체사람처노코커피나 홍차니『코코아』니하는차를 자시는분이별로 업스시겟지요 이것은 류행이아니라 외국의풍습이 조선에드러와 일상생활의한 필수품으로 뿌리를 박게되는경향이아닐까도 생각됩니다

그거엇잿든간에 이러한 차종류의 대부분은 그주성분이『카페인』『레오피린』『레오부로민』등의약카로이드인데 잠을 깨우게하고 잠이들지못하게하는작용과 피로를 회복식혀흥분하게하는 작용을 가젓슴뿐외라 또소화기(消化器)로흡수가 썩빨리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일본내지의 모의사가 차와 인체의혈압관게를 시험해본결과를 보면 다음과갓습니다 의사는 남녀수명의 건강자를 택해서 저녁때부터 아모차도못 먹게하고 저녁먹은뒤 두시간부터 보통찻잔의 물분량에다 록차(소위일본차라는것) 이그람 홍은 삼그람 홍차록그람 흥으삽 칠그람식을 모당(角砂糖)두개식타서 차례로 먹여노코 먹은지 십오분동안에 혈압(血壓)을 치정하기를 두시간반동안해서 각기 그변화되는것을 살폇습니다 그리고 이와대조해서 순전한카페인〇、一三그람과 모당두개를 타서먹은것과 단지 모당두개만을 타먹어본 그결과까지 비교해보것입니다 그리고본즉 일본차나 순수한카페인만을 먹은경우에는 먹은지 십오분뒤부터두시간동안혈압은 최고(最高)최저(最低)가 다평상이상으로 올라가섯고 모당만먹엇슬때는 아무러치도 안햇다합니다 그다음『커피ー』나『코코아』의 경우에는 한시간과 십오분내지 사십오분때부터 최고 최저혈압이 다가티무척 야럿다합니다.

이와가티 엇재서 차의종류에 따라 반대의 현상이생기느냐하면 그성분인『카페인』과『태오부로민』의 품질과 분량에달렷다는것입니다 원래『카페인』은 뇌、심장、신장등의 혈관은 확장시키고 다른혈관은 수축식히는 작용이 잇스므로 혈압이오르고、『레오부로민』은 심장을흥분식히는것보다 말초혈관(末梢血管)을 확장식히는 작용이 뛰어나니까 혈압은 도리혀 나저진다는것입니다 이시험의 결과로 보면 록차나 홍차는 심장을흥분식히는힘이 나흔편이고『커피ー』는 차와가른분량으로 흥분식히는힘이업고『코코아』는『카페인』의량이 퍽적고『레오부로민』이만흔 까닭에혈압이 나저집니다 이상의 시험 성적으로보아 만약몸이피곤할때 차를 먹으랴면 록차가조코『커피ー』를 먹으랴면 진한것을 먹어야되는것을 알수잇습니다。

우리 차지



새들은 밤눈을 못보기 때문에 밤에는 꼼짝을 못하고 제집에 가만히 드러업디어잇다。그러치만 가튼새로 올빼미와 부엉이는 낫눈이어둡고 밤눈이밝어 나제는 꼼짝못하고 밤이래야 날러다니면서 먹을것을 찻는다。

(글과그림 황정룡)

색헌겁의藝術

帛畵展覽會

金在璟氏 六月四日부터三日間 府民館小講堂에서

비단그림이 생기엇습니다. 처음 시작한분 개성게신 김재경(金在璟)씨입니다. 비단조각을 이리비고 저리비어 풀로발러 노호면 사람도되고 검성도되고 집도되고 산도되고 별의별ㅅ것이 다됩니다. 수보담 간단한데 오히려 수보담보기가 조하서 안악네예술로는 더이상이 업습니다. 색조히를 오리어 그림을맨

돌림감기든사자

모든 즘생의 왕이라고 일컷는 사자도 돌림감기에걸리니 병이란 엇던것이고간에 맹수보다도 무서운게지요—영국리버풀동물원에잇는 사자(입솔은렉스)는감기에 걸려매우고생입니다식욕이업서 진지를못잡숫고기운이업서 멍하니 잇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속전문의사는 매일렉스씨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듯기와 약을지어올리기에 매우고단합니다

童話 두소곰장수

金光鎬

『소곰사』 경함이는 소곰한궤짝을 지고 이골목 저골목으로 헤매엿습니다 『누가 안사주나 혹시 누가 조곰사수하고 불르지나안나』 하고 생각하며 갈골가다가 귀를 기우리기도하고 도라서서 머물러 살피기도햇습니다.

『소곰사려 소곰사!』 경함이의 목쉬인 소리는 잘 알아듯기 어려울만큼 보잘것업햇습니다. 그러나 인제 열한살 된 나히어린 경함이라 대개가 다 소곰장수려니 할뿐이엿습니다

『소곰사…… 소곰사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웨치며 한골목을 나올라니 위에서 『소곰……』 노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분명히 들리엿습니다 경함이는 올치 인제는 한번 파는구나 돈을 버는구나하고 도라서보니 거기에는 돗바게 원키가 좋흔 엘떤실되여보이는 소곰장수하나이가 『소곰사 소곰사—』 하고 외치면서 오는것이엿습니다

경함이는 잘못알아들은것을깨달고 다시봄을올려 『소곰사려. 소곰사려—』 하고외칠수밧게업섯습니다 해는아직도 돗지안헛습니다 이제도 넘어잇는겨울 찬바람은그들의 군데군데 떨어진옷으로새어들어 살을 콕콕찔르는것가티추웟습니다 그러나 경함이는 그다지 추운줄을몰랏습니다 소곰장수한지 겨우 사나흘되지만논 올비는 기뻘인지 그다지 추운줄을 몰랏든것입니다

『소곰사려 마차게딸아요 소곰사려……』 경함이는 뒤에 딸아오는 소곰장수가 좀미웟습니다 그래서 넘우맛사딸아오지 못하게 거름을 빨리거려가면서 소곰을●차 계판다는 말한마디를 떠 너코 외첫습니다

『소곰장수야』 이것은 분명이 불르는 소리엿습니다 경함이는 먼저 내하고 뒤로돌아서서, 딸아오는소곰장수가오기전에 불르는 대문간까지가서소곰밋궤작을 내려노핫습니다 딸아오든소곰장사는 분한듯이 경함이를쏘아보앗습니다

『얼마치여요?』 廿錢꾸령을 열며하는 경함의 말이엿습니다 『오전어치』 주인여편네는 항아리를가지고 나와서 『만히줘』 하고한마디더햇습니다 『네 만히 들이지요』 하는 경함의 얼마안돼어진뒤에는 아까딸아오든 그소곰장사가안타깝다는듯이 물거럼히 디려다보고서 잇섯습니다 경함이는 수북수북 항아리가 찰만큼 만히주엇습니다. 주인녀편네는 만히바덧다는듯이 『이담에 또와』하고 소곰갑오전을주고 들어갓습니다 경함이는 그오전을 호주머니감히너코 소곰궤짝을 집야고들 아서니 유심히 노려보는 아까그소곰장사! 경함이는 퍽무서웟습니다. 그러나보지만척하고 『소곰사려 소곰사려』 하는아까보다 한층더 높은소리로외치면서발을옴겨노핫습니다

어느 골목이엿습니다. 『조곰사려 소곰사려』 경함이가 이러케 커다랏케외치고나니 뒤에서 『이자식 거기잇서!』 하는소리와함께 악가 그키큰 소곰장수가 눈을 부라리고 따라오고잇섯습니다.

『이자식』 그는 소곰궤짝을 내려노코 경함이의 빵을때렷습니다. 경함이는 대번에 눈물이아플 만큼 맞엇습니다. 『웨때려』 하고 울며말햇습니다. 그는더 화가치미다는듯이 아무 말업시 다시 수업시 경함의빵을 때렷습니다. 『이자식 웨 소곰을차게팔어?』 『싸게 팔면 어때?』 『뭐? 남은 어떠게 파라먹고 살어 용이자식』 그는경함이가 만만하다는듯이 도매작구쥐어박앗습니다 경함이도 대면 살 또 원채기운도 만허서 경함이는 어림도업섯습니다

『소곰을 차게판다고 남을미때 습니다』 나가든 어른한분이 말리고섯섯 『왜들이래 왜이래』하고 길지 들이서 물고뜻고 차고할때려요』 경함이가 어른에게 이러케일르니까 큰에는 여페서 두주먹을쥐고서서 변명을 햇습니다 『이놈의에가 남의값길을 압질려가면서 소곰을싸게파니 나는 엇더케해요』

어룬은 두아해말을 듯더니 『너이들 싸우는까닭을 알겟다 가튼장사가 틀이서함께 꽉가튼길을 거러서야되겟니 애작은에 너는 이길을 바로나서서 큰길 건네쪽동내로 다니며 파러라. 큰에너는 길이편쪽으로 다니며 팔면 안되니 남가는길을 따라서는 장사란 잘 안되는것이란다』햇습니다. 그제야 두아이는 『참 올흔말슴입니다』하고 서로서로 딴골목으로 가버렷습니다.

—(쯧)—

★曆★ 五月卅一日(日) 陰曆四月小(十一日) 癸丑·木·房·戌

●裁衣勤士上樑巳時開市納財에宜함

●小滿二十一日(陰初一日)

●芒種六日(陰十七日)

長篇小說 아카시아(二)

安碩柱作 金熊超畵

영섭은 자긔의 몰골을보다 빼버린진가슴을보다 어듸로본지 때벗기는것이 늘것가티 안하나 자긔의성질이 신경질인 그것하나가 그런병에 걸릴소질이 아니가 구보담도 자긔안해가 산후에 즉시죽은것이 의사의말로는 심장도약하지만 폐가약한까닭이라하엿다 자긔안해가 살어잇섯슬때 몸이 조금압헛스나그래도 살빗가튼것은 건강색이엿다 조곰가슴이 옥은듯한것 두뺨이 너무도곱게 붉은것, 그것이 폐가 납빼든까닭이 아니엿든가그러면 그때가 폐ㅅ병초긔엿스리라하면 초긔에도 전염이되는가 이러케 불안을느길사록 자긔의 맘이 약해짐을늣기고 공연한신경과민이라하고는 맘을 굿세게 먹어도보앗다 내몸이약한것은겨무에찌들고 또정신상으로밧는형용해말할수 업는야릇한 압력때문이라 하엿다 만약나도긔를펴고 사는때에는 다시옛날건강한몸으로 회복되리라하엿다 그러치만 더러울게도 옛주억이 자긔에게떠나가는날은 의식이 업서진뒤라야 자긔에게서 떠날 것은 자긔가죽은뒤라야 자긔에게서 떠날수잇스리라하엿다

◇

영섭은 회사에 왓다 그러케 언제나 머리속이뒤설레고 잠을못자도 그는출근시간을어여본적이업다 이것은 옷사람에게 근실하게 보이느라고하는데서나온 버릇이아니요 자긔로서 맛당히 직힐것은직혀야한다는것 정신을 한곳으로 통일하는데에 잇서서도 이출근시간부터 직혀야 한다는것 자긔몸을자긔가 세우는데도 이아츰의 출근시간을 직혀야한다는것 이것은 과장이 늘ㅣ능설ㅅ조로말하는 (시간엄수)의 해설과는달다 그것은『생산능률에 잇서서』『사무능률에 잇서서』 시간을잘 직히고 안 직히는데 큰관계가 잇다는것이지만 영섭은자긔를 위해서다 그러나 우선정신을통일한는데 잇서서』——란이것이 도리혀 자긔를 신경질로 더나가서 신경쇠약까지이르도록자긔 해독자긔모순이되게하는지모른다 이것은 영섭도 깨닷고 스사로 자긔를향해 비웃는때도잇다 그러치만 영섭이에게 솔직히고백하라면 그것은 늘ㅣ 자긔의 폐를의심하는까닭에 아츰공긔를 놋치지아호랴는것이다

영섭이가 모자를걸고 자리에 안자 급사아이가 차를따라노핫다 그리고는 그급사가 영섭이를 흘금보앗다

『오늘은 어케 신색시 더조치 안흐신데요 무슨병환이게서요』 이급사아이는 아마 이회사안에서 자긔를위하야 말을쓰는사람이잇다면 단하사람인 그아이일것이다 비가오면 못지도안코 영섭의집에서 우산을 갓다주며 담배마코를 사오라고 구녀뚜려진오전짜리를 한푼주면 제출물로 십전짜리『피죤』을사다가슴적노코 자리를 비키는때도잇다 이런때면 영섭은 그아이를불러 『자네 이게웬셈인가』 하면 그급사는 얼골이 벌ㅣ개 가지고 우스며 『아녜요』 하고다라난다 영섭은 또이것때문에 미안해서 그오전을 그아이에게 돌려보낼때까지는 맘을 알른다

그리고 그런 급사아이에게까지 동정을 밧는 사람이 되엿는가하면 얼골이 화끈햇다 이것은 그아이에게서가 아니라 이세상에게 큰모욕을 당하고사는 듯하엿다 이러케 좃한마음은 자존심때문이라 하엿다 ……것이 아니라 가난이 싸고도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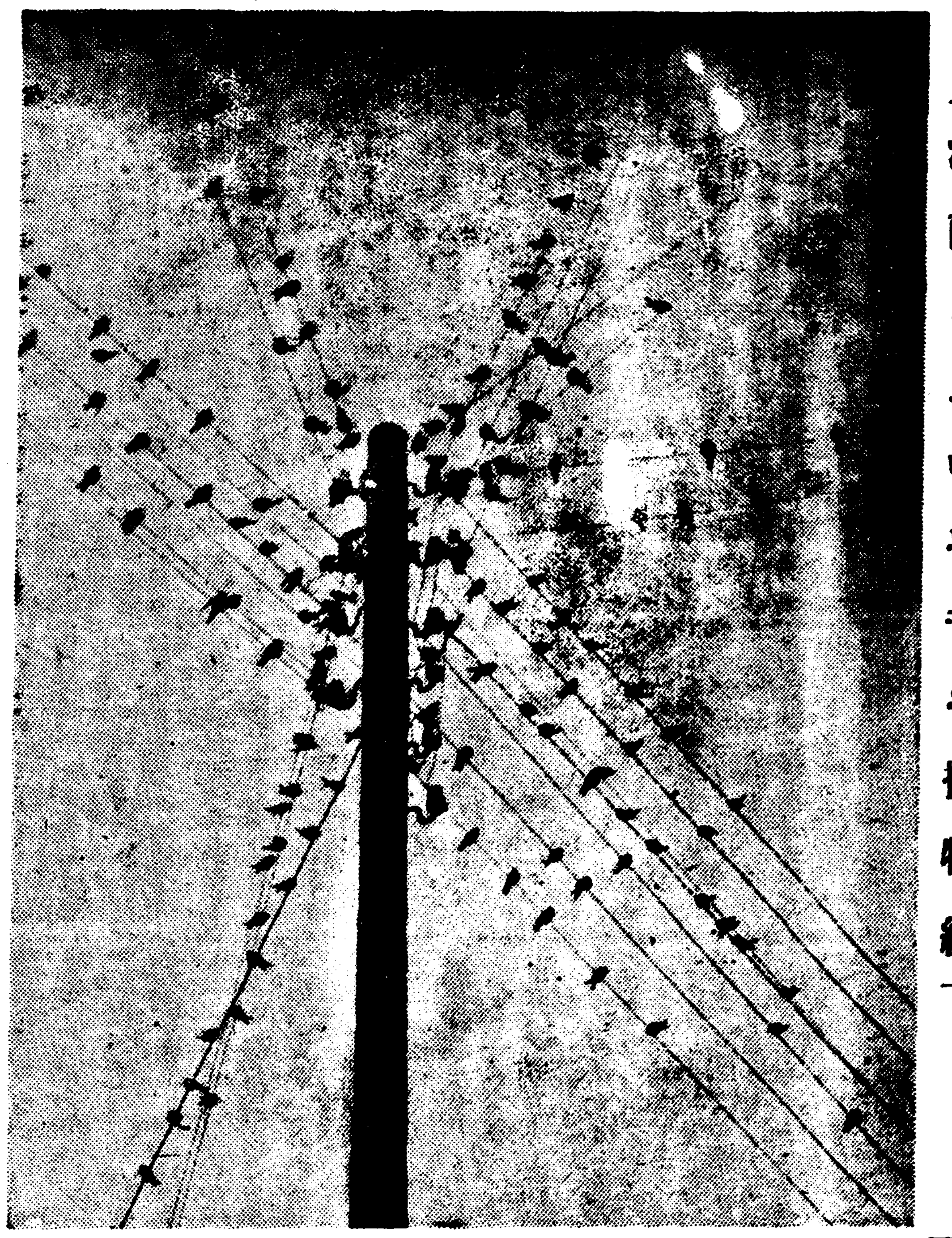
오늘 드러오자마자 제일 자긔를 각가히하는(조경하는)그아이가 자긔의 얼골을보고 어듸가 아프냐 할때에 심상치안흔 두사히이니 바로본것이라 하엿다 그래서 더욱 맘이 선듯하엿다

『정말 그래보히나』 영섭의 음성은 헛소리 가탓다 『아니예요 그저 좀 못되신것 가태요』 하고 급사아이는 싱긋웃고가버렷다

이때에 과장이드러왓다 이역시 얼골판은크나 그눈이라는가 귀생김이라든가 콧날이라든가 신경질로생긴사나히다 안경을써서 그눈이 어리여보히기때문에 잘 모르지만 누구와 친근히굴며이야기할때면 그눈이 가룰거리는것——또는 제비꼬리가티 가느수룩한수염미테 그둑거운듯한입추리를 가벼웁게놀리는것——그눈과입이 그의출세에 큰역할을한것이다

옷사람에게 점잔으면서 공손하고 아래사람에게는 겸손하면서도 잔소리가만코 그부드러운 음성에 바늘가튼 경ㅅ구로 살그머니 누르는것이 이회사안에서 명과장을맨든것이다

영섭은차를마시다말고이러섯다 술이아즉도깨이지안흔듯한 불에데인것가튼 벌ㅣ건 그의얼골을 힐긋보며 허리를굽히여 인사를하엿다



一江南으로 떠나는 꿈의 拋物線一

創作方法問題論議의 發展過程과 그 展望 (二)

安含光

하나 어려한歷史的時期에잇서서의 樣式의分化——樣式의相異한 바리에ー슌은 한개의必然한 現象인것이니 그는當該時期에現存하는바 若干의階級이 各其自己의作家의姿態에잇서서 自己의藝術을創造하려고한 歷史的事情과 決코無關할수는업는것이다。그러나 現今朝鮮作壇에서 그萌芽를보이는 레아리즘의俗된 바리에ー슌은 決코 이러한必然的인事情에依據한것이아니라 그와는反對로 그의歷史的性格을 理解하지못하는데로 부터 그本來의 性格인「廣汎한 上昇의意慾」의俗物的無能之道와 代置되는 亞流의 濁流이다。

그러면 現代레아리즘의 性格은 그具體的解答을 어떠한方法에依해서가저와야 할것이냐? 그는 두말할것도업시 現代레아리즘의 發展過程에 對한歷史的觀察을 試하여야 할것이며 이리하야 그가發展過程에서 그와相剋하고 또는 融合해온 로만티시즘과의 關係를 明白히하여야 할것이다。

筆者는 여기에서 레아리즘의 發展道程을 佛蘭西에서 引例하면서 그를 그時代의經濟的政治的基底와 照應하야밝히어나가려한다。

그는 레아리즘의 巨匠으로서 발작크의일홈이 現今저널리즘에 □頭되다는 表面現象때문이아니라 佛蘭西야말로 그어느나라보다도 가장 明確하게 레아리즘의 發展過程을提示하고잇다는 事情에依한것임은두말할것도업다。

明

十七世紀에 잇서서의 佛蘭西의 現實主義는 社會的横斷 當時商業資本階級의 發展이 君主의 武力的勢力과 結合함에依하야 封建的政治形態를破壞하고 自己의有利한 地盤을 謀하거 위하야 君主와의結合에依한 絶對君主政體의 確立에로 邁進하든時代의 歷史的 性格에不外하다。

그러기때문에 이時代의 政治的變革은 商業資本階級이 自主的으로 自己의 經濟的壓力에依하야 形成하엿다고하기보다는 貴族의 傳統的勢力으로서의 武力에 依하야 遂行되엿다고 理解하는편이 보담 妥當하리라고밋는다。

그러기때문에 이때의 國家의 形成에 잇서서 가장 重要한것은 民衆的인 權力의 集結이아니라 그와는 反對로 上部로부터의 强權의 確立이엇다。

이리하야 政治的으로는 中央集權主義이엇고 經濟的으로는 重商主義가 支配的인 스타일이엇섯다。

이러한 制度를 制定함에잇서 「理智」의 役割이 至大하엿슴은 그것을 理解함에 우리는 아무런困難도 늣기지 안는다。

建

設前夜에 잇서서의破壞의 役割은 할지언정 建設以後의 秩序組織을 위하여는 理智보다 그距離가 먼것이 狂奔되는情熱(!) 그것은 기때문이다。

이러한 政治的秩序는 必然으로 文藝에 잇서서의 法則의制定으로서, 藝術上에反映되엿다。作品 잔르의明確한區別, 戲曲構成에잇서서의, 三一致의法則等이要求되엿고, 外廓的으로는, 이와類似한社會的條件을具備한 希臘의古典이 復活되여 그當時의詩人 보알로ー의 理論的基礎가 提供되엿는것이다。

보알로ー는말한다。—「詩人은 感情으로서가아니라, 理智에依하야 行動하지안허서는 아니된다。詩的創造는 理性의所爲이기때문에 그가目的하는바는 眞理眞實이아니어서는 아니된다。「眞實한것만이美다」「眞實한것이란것은 空想的인물건이아니라 自然이다。「眞理는自然이다」——이리하야 古典主義文藝는 自然主義로나타낫고 合理的 現實主義로나타낫다。

그러나 이古典主義文藝에나타난 레아리즘은 眞實한意味에잇서서의 歷史性과 社會性을帶同하지는못햇서다는것을 理解하지안허서는아니될것이다。

그는 民衆的權力의

集

結로서가아니라 上部로부터의 强權의樹立에依하야 產出되엿스며 絶對的君主制的時期에잇서서는 一切의藝術은 永遠히孤獨한待遇를밧지안흘수업는 그當時의政治的事情에서 說明되여질것은勿論이다。

上述한바와가티 歷史的事情에依하야發生된 古典自然主義는 君主政體의 이데오르기——的藝術이 一般化하고 固定化함에따라서 漸次로 革新期的現實性으로의 發展과 따라서 레아리즘과 世界觀의結合은 分解過程을밟기始作하엿다。

藝術에잇서서의 素材의進化 漸次로 擴頭되는反面에 形式의主身의獨自的價値가 形式的으로 唱되기始作하엿고 藝術의現實性의捨象은 極度로强度되기始作하엿다。

이러한情勢가운데서 沒落되면서잇든 商業資本貴族에 依하야 그 『第三身分』은 上昇의一路에서 그 勇敢한表現을 내세우기始作하엿든것이다

創作에잇서서의 個性과 普遍性

白鐵

一

創作의 個性과 普遍性問題! 筆者가 예約束한 이宿題를 여기에 探論하려고 하거니와近年에 人間描寫論이라는 主題目下에 나와 貧弱한 批評文學의 體系를세우고잇는 그 主題에 對하야도 一段

創作에잇서 個性과 普遍性問題! 이것은 文學의 原始苦!에 屬하는 永遠한 問題다!

이地上의 人間이 그의 素朴한 衣食住의 生活에 滿足하지안코 實際의 利益과는 別로關係도업는 隱分의 세리케ー리즘! 을 追求하려고 할때에 한課題가 가르치는데依하면 神이許諾지아니한 聖火를 人間의 手中에 獲得하려고할때에 文學의 原始苦 即個性과 普遍性問題는 文學의 永遠한 苦悶으로서 獻與되엿다! 왜그러냐하면 人間이란 神이 許諾한 限에서는 本來 個性的이고 有限的이고 自然的인 存在이면서 不拘하고 人間의 藝術的意慾은 처음부터 生命과 個性的, 瞬間的인 意味에 滿足하지안코 一層 永遠한것, 普遍的, 神的인것에, 到達하려는 意慾의 表現이엇든것이 明白한 事實인까닭이다

作家는 그의 創作行動에잇서 一層 矛盾되는 두가지 方向의

意慾 나을 가지고왓다 그가어데까지하든지 有限的이고 個性的이라는 意味에서 될수잇는대로 그 個性을 發揮하려는意慾과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는 同時에 永遠的이며 普遍的이려고하는 意慾! 그두가지 矛盾되는 意慾을 雙全하려는곳에 作家가 야할運命이 잇다! 實로 이問題는 自古及今에 輩出한 헤아릴수업는 數文의 作家가 永遠히 苦悶해온 問題이며 또한東西古今의 全文學史가 一側面으로보면 이原始苦의 苦悶史를 記錄해온것에 不過한것이엇다! 적어도 그것은 過去文學의 全合唱史에 잇서 두려운 主要主調가 되여 온것만은 事實이엇다!

이個性! 普遍性問題를 解決하기위하야 希臘의藝術人들은神의 上半身과 山羊의 下半身을가진 高奇하고 奇怪한動物을 創想으로 藝術해 노코 그形態를 通하야그들의 明朗한

性格 은人間과神사이의 間隔個性에서 普遍的彼岸까지到達하야엇다고 滿足할이엇다「니체」는이「사틸」이라는 動物에 希臘藝術의다이오니사스的傾向만을 보려고하얏스나 萬一「니체」의 指摘과가티 希臘藝術의 發展에 아폴로的方面과다이오니서스的方向의 두가지가잇섯다면사틸은이오니서스的傾向을 代表햇슬뿐아니라 아폴로的傾向을 아울너 가지고잇다는것을 보는것이 可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러케 생각하는데서만 이오니서스的과 아폴로的의相反되는 두가지 衝動이 希臘人的意志의 形而上學的奇蹟에 依하야 現象的으로 結合되엇이 잇다는 事實, 그리고 그結合가운데서 「에리카」悲劇과가티 다이오니서스的인 同時에아폴로的이엇다!」는 事實을 어느程度까지 信賴할수잇는것이다

古代希臘時代의 그明朗 民族의 藝術로서 藝術의 個性과普遍性의 問題가 『사틸』이라는便宜한

動物 統一의假像에 依하야 統一되지못하고 그야로 후의 文學史의 發展에잇서는이두가지傾向 即다이오니서스的인것과아폴로的인것이 도리혀 커다란 亂裂으로서 잇다금은 內角과補角의關係로서 發展하려고 할때에 主로 古典的傾向에 依하야 代表된 文學은 節度와 規範과 諧念에 依하야 個性과普遍性사이의 斷層을 中斷하려고 햇스며 그와反對로 浪漫的傾向에依하야 代表된 文學은 混沌과生成과 無限가운데서 個性과 普遍性의 深淵을 飛躍하려고 하얏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今日의文學의 發展을닑하야 생각할때에는이個性과普遍性의問題를어떠케 理解해여야 할까 이것이 今日의 우리들의 問題이며 또한 여기서 내가 未及한대로追求하려는 課題다! 全文學史의 基調로되여잇는 이問題를 過去의 文學들이 그時代時代에 잇서 어떠케 理解하며 解決하며 또한 그解決을위하야 어느程度로

苦悶 햇든가 하는데依하야 그文學의 性格이 決定되엿을뿐아니라 그文學의 基本의 眞實에 接近하는 方面과 情熱과 意慾까지도 決定되엇든것이 事實이라면 그만치 文學에잇서 基本的인同時에 全面的인 이問題가어느時代에나 그世代의文學을 위하야 中心問題엿이어니와 더구나 今日에잇서 文學이 絕頂과 深淵에 接近하지못하고 表面과 山頭에서 稀薄한 諧戯에 滿足하고 잇는 이時代에잇서는 우리들의 文學이 絕頂의 眞實의 孤高에 기위하야 深淵의 眞摯를 探鋼키위하야는 여기서이 個性과 普遍性問題를 기피 理解하고 그解決을위하야 情熱과 全意慾을 發揮하여야할것을 절實히 늣기는바이다!

一古書解說一(三) 朱子增損呂氏鄉約

方鍾鉉

그때에 朝廷에서 相當히 이 鄉約을 中心으로하고 論議가 紛紛햇는모양이 나타나는것으로서 一部에서는 이鄉約을 一般에게 頒布하야 施行케하는데에 反對를 强便히 하는形便이 보이고 또他方으로는 頒布하는것을 必要하다고力說한것이 分明하다 이와가티 문제되어

……且呂氏乃行於一鄉非遍行於朝廷今但多出此書廣頒中外則民稍從其教或將倣其儀任其自爲之事也……

結局은 어떠케 할수업음으로 이것을 國令으로 發布하는形式을 取치안코 自任해버려서 맘대로하도록 하라는態度로 許하게되엿스므로 이에다시 啓를하야 命令이 朝廷으로부터나오는 것이아니면 이法이 잘施行되지 안을것을 말할것도업거니와 百姓들이 當然한맘으로自行할수 잇게될理由가 업다고하엿다 그러나 『上之執其 兩端折衷』라는 文句와가티 最後까지 正式으로 發令되지는 안헛다 이와가티하야 栗谷도 『經行鄉約未便之意』로서 眉岩集에와 栗谷全書에 數處에 들어나는것이잇스니 바루 萬曆二年二月初六日 卽朱元德에게 內賜되는 年月에도 栗谷은 頒布에對하야 反對의意審 表한文句가잇다、또 宣祖實錄卷之八에보면

李珥進曰淸先行救民革弊之政內後行鄉約希春曰淸俟救民數年然後行 上曰予赤初以爲難當歸于大臣……

이와가티 되어서 이 內賜年月 卽萬曆二年二月을 中心으로하고 그前後年間이 鄉約에關한문제가 相當히 大臣間에 것든것을 침작할수잇고 自任되어잇는事實로 밀우워보아서 또는 그文句上 刊行頒布에關한 敍述의 記錄으로보아서도 萬年二年에 이呂氏鄉約諺解는 다시 刊行된것으로 認定할수밧게 업고 또 그것을 朱元德에게 內賜된것으로 미듣수밧게 달리 道理가 업는것이다。以上으로써 이책에 關한名稱과 그由來를 大略 꿋마추고 이제 이아래로 이책의 實物에關한 內容的 或은 外形上考察과 아울러 現存된 이책의價値 即 諺解에서 또는 吏吐우에서 내가보는 價値를 밝히어 資料로서의 貴重性을 다시말하면 信憑與否를 論定해보려고한다

몬저 이책의外形을 論하기로하면 紙質로 보아서도 그內賜年代를 밋기에 틀림업을것이오 또 이책의 體裁로 보아서도 그 內賜年代를 밋기에 屬하리만큼오래되엿고 그글字의 字形으로보아서도 틀림업시 鮮明하게 나타나잇다 이책은 印刷한點으로 觀察하야 活字本임이 틀림업스니 成化年間에 刊行된 杜詩諺解와 南明集과가튼 鑄活字本의 貴重한책이 잇는것을후리가 活字上으로도 기뻐하는일이어니와 이책과 佛頂心陀羅尼經이 中宗朝에 다시 活字本으로 刊行되어서 우리에게 貴重한資料를 提供하여주는것이 참으로 貴히녀겨 액기는바이다。

이와다른책 卽 異本을發見하는 한資料로 쓰기에 相當한 도움이 될것으로안다、이제 이책의大小를 밝히면 長이 一尺一寸五分 幅이 七寸이고 또 板形에잇서는 그長이 八寸이고 幅이 五寸六分으로 되엿다 다음으로 그每行에 조여쓴字數는 十八字로 一定하게되엿스나 그러나 그每張에 排列된 行數는 不一하다 그러하야 어떤張은 十八行으로 또다른張은 十九行으로 或은 二十行으로 이와가티 一定되지안흔行數로 채워잇다、그러나 以上의三種以外에는 달리 不法하게되지안헛스니 그것은 어쨋든 이책의諺解의部分은每葉九行이고 漢文의部分은 每葉十行으로 一定되어서 조곰도 어김이 업다、그보담도、諺解의部分과漢文의部分과가 一葉에섞겨잇게되는境遇에는 또다시 그行數에아래와 가튼規定이 잇게되엇다。

그매장板心에는 呂氏鄉約이라는 四字가 明記되어 잇는것이지만 도 異常하게도 이책의 第四十一張에는 아래로 두字를빼서하여서 呂氏鄉約이라고 記入되엿스니 이것도 植字工이 不注意로因한것이지만 우리에게는도

『黃昏의노래』

學藝消息

出版記念會

李石薰氏의 第一回短篇集『黃昏의노래』가 上梓되엿스므로그 文友 몃몃분이 이出版을 記念키 爲하야 左記와 如히 記念會를가지겟다는데 만히 參加해주시기를 바란다고한다。

一、時日 五月三十一日(日)午後一時

一、場所 東少門外 新興寺

一、會費 一圓 (當日持參)

發起人 [illegible]氏外十六日人

瑣事雜題 『辱說』辯 (上)

李源朝

辱이라는것을 中傷이라는말과 共通되니 그러나 中傷이란 언제든지 相對者를 傷害하는것임에도 不拘하고 다가튼 中傷에서도 財産上으로나 또는 內實的으로든 中傷은 辱이라고하지안는다。그럼으로 辱이라는것은 언제든지 人格을傷害햇을때만 成立되는것이다 假令 財産上傷害인 强盜나 殺害를 當햇다고해서 그것을 辱이라고는 하지안는것과가티 內體上傷害인 毆打나 創傷을 當햇다고해서 그것이 辱이라고는할수업는것이나 혹시는 남에게 맛고나서「에이 辱봣네」하는것은 毆打하게 생각하면 毆打를 當햇다는 그것만으로서 하는말이아니라 毆打를 當하는 過程에서 무엇으로든지 人格的傷害가 併行된때문인것이다

그러면 人格的傷害는 다 辱이냐? 하면 반드시 그러치도 안타 假令 우리가 남의 人格을 傷害할때는 여러가지 方法이 잇다 正面攻擊도잇고 背面攻擊도잇고 易罪도잇다。그래서 실상 남의 人格을 傷害하는데잇서서는 正面攻擊보담도 예로는 背面攻擊이나 易罪이 더效果的일때가 잇슴에도不拘하고 그人格을 傷害한 相對者가 수없 辱으로 感覺하지못할때가잇기도하며 또는 實로서 실상은 相對者의 人格을 侮辱하엿슬때에 도리혀 辱이라고 말하고나서는 誤解를 살때도잇는것이다。

이러케되고보면 辱이란 반드시 남의 人格을傷害할제만 되는 것은 아니다 辱하는사람의 意圖의 善惡보담도 辱當하는사람의 感情의 快不快에서 決定되는것이다

勿論 辱이란 社會的으로보면 한개의 倫理的規範에는 틀림업다。그럼으로 辱說이라는것을 第三者的立場에서 볼때는 辱當한 사람보담도 辱을 한 사람이 항상 그르다는 判斷을 밧게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辱이라는화살의 과녁은 아떠잇는것이아니고 도리혀 辱을 쏘는 그自身에게로 도라서는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辱이란것이 辱이란因이 되는 것이니 남의 人格을中傷하거나 해타는것이 아니라 실상은 相對者의 人格에의 不快를 주엇다는것이 그 理的 實質임이 아니라 오히려 正當性을 가젓다 卽하거에서 決定되는것이다 假令 辱이나 否定的不快感을 이르키게하면서도 그것이 社會的으로 볼때는 辱이라고하지안는 것이라는지 그人格을 傷害하는것은 社會的으로 그것을 辱이라고하지안는것은 辱이 반드시 個人對 個人의 人格이나 感情的問題에서 決定되는것이아니고 社會的하게말하면 辱說하고 辱하게되는 社會의 社會的 情勢의 具否에서 決定되는것이니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 辱이 辱일때에는 辱하는사람이 그르다는 한개의 道德的眞理를 容認할수잇다는 것이다。

이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네의 日常生活에는 이 當然한事實이 無視되거나 또는 反對로 나타나는 跡象이 얼마라도 잇슴으로敢히 이『辱說辯』이라는 一文을 草하게되엿으며 또한 이 一文을 좀 더明瞭하게 하기 위해서 序例가 必要以上으로 長皇하게 되엿가드나 以下에 이 混亂된 一般觀念을 是正하기 위해서는 이 長皇한序辯이나 짐밧을 수밧게 업는 것이다。

藝術과 創造

素材에 對한 作家의 使命 (一)

李秉珏

옛말에 『無識한刻手가 파리똥을 새이엿다』는 것이잇다。그말의 뜻을 뒤푸리하는 것은 우수운것가트나 옛글을 印刷이 오날과가티 發達되지못하얏든지라 著書가든것을 出版하라면 木刻을 하게되엿스다 原稿를 淸書하야 그版우에 붓친다음그것을刻手가 칼로 影刻하는데글字를 새이는 刻手가 無識한사람이라 原稿淸書紙우에 파리가 똥을 누어서 字劃사이에 까뭇한 點들이 잇스니 그것을 그냥影刻하야서 版木을 버렷다는意味로 傳해온말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옛말가운데서 藝術과創造에 對한 큰示唆을 차저보기에 힘들지안는다。

이例의말가운데 原木우에부터잇는 原稿淸書는 藝術家가 對하는 客觀的現實—卽文學의創造的素材로 볼수잇스며 刻手는作家로 볼것이다。이곳에서 刻手의原稿에 對한態度와 認識力은 作家의 現實素材에對한 態度와 認識力으로서 素材의取捨를 거처 짧의創造에對한 基本的 要素며 出發點이 아니면 안될것이다 無識有識할것업시 原稿淸書가 刻手의손에넘어올때의 原狀대로 忠實히影刻하얏스며 칼질이能하야 수연하게되엿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抗辯한다면우리는 무엇이라고 是非를 가리여야 할가? 勿論 이 抗辯은 法理的으로 解釋한다면 論理에 아모 差錯이 업다고 할수잇스나 刻手란 藝術家로서 볼때、그 손에서 파리똥과 글字가 混同되여 새이여나온것이 藝術作品으로서 完全한것이며、著書의 內容을 眞實하게 나타내엿다고 볼수는 업을것이다。原稿淸書紙우에 나타난 影刻의 素材는 忠實히 寫實的으로 하얏다 하더라도 이것은 罪스럽게도 죽은 寫實인것이며、素材의 正當한 取捨를 하지못하얏스므로 말미아마 册版으로는 生産되엿다고 보잘것업는 더러운것이 다。眞若 여긔에 有能하고 技巧도 能한 刻手가 잇섯다면 그 刻手는 決코 無用의—— 그러고 잇서서는 안될 파리똥을새이지는 안흘것이며 誤字가 잇다면 訂正하고 字劃이 빠진것이 잇다면 너허가며 나아가서는 完全한 册版을 影刻하얏슬것이요 파리똥업는原稿淸書以上으로 內容에忠實한 眞實的인 寫實을 하얏슬것이다 이것은 原稿素材의現狀대로는 寫實치안헛다하더라도 素材가 가지고 잇는 典型은 眞實히 드러내엿다고할수잇다 그리하야 그것은 原書의 文理와合致된 册版을生産하얏슬것이다 이러한 關係를 캐여볼때 客觀的素材를 가지고 作家가 作品을生産할때엔 素材의直觀에서 어든 感覺을 思惟를通하야 取捨하고 典型을 創造함으로서 客觀的 眞理를 形象化하며 表現한다는것과 藝術의 本質的任務를 다하는것과 刻手가 誤認識과 技巧가能한 刻手가 誤字의 訂正까지 하여가며 影刻한다는것은 素材의取捨를거처 짧을創造하야엇다고 볼수잇는것인同時에 그刻手의創造는 版刻의本實的任務를 忠實히하얏는것이다 여긔에는 素材의認識力을가진사람이면 누구나 그機能을 다할수잇스며 素材의認識力이업더라도 影刻技巧만엇스면 할수잇는 것이아니다 素材의認識力과創造技術이具備하지안흐면 안되는것이다 이것은 文壇에서問題되여오든 世界觀과方法의 關係에對하야 機械的分離와盲目的混同에서 나오는誤謬에 큰暗示를 주는것이다。

이와가티 藝術에 잇서서 客觀的現實의 素材를 外面的인純朴한模倣으로서만 滿足하는 十九世紀寫實主義는 이것이 레아리즘이 아니라 自然主義라고 말하는것이 正當할것이며 藝術家로서의 過大評價할것이 못된다。

外面的인 純朴한 素材의 模倣이 藝術이라면 우리에게는藝術이그다지 必要치 안흘듯하다 왜그러냐하면 素材그물건을 鑑賞하면 그만일것이다

藝術의 特徵인 創造가 업시 아모리 素材의 忠實한 外面的인模倣일지라도 色과線이 뚜렷한素材가 우리들의 直觀에 呼訴하며 그것에 依한感覺보다더 어더케무엇을 가저다 울수잇슬것이냐?

이와가티 藝術에 잇서서의創造라는것이 藝術의 本質的機能을忠實히하는데 重要한 모멘트가되는同時에 이것이 업시는藝術의成立이 不可能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러한 藝術的創造를 가지고 人間의 一般的創造와 混同하야 人間固有의 本能—다시말하면 客觀的實在와는 獨立한 創造精神으로 주저울이고 客觀的實在의 渾沌한現狀과 社會的生産關係가 이러한創造的精神乃至本能에 依하야 服從되여잇는듯이 解釋하는 觀念論的藝術至上主義는 警戒하지안흐면 안되는것이다。

漢詩募集

題、綠陰

押=驚

◇限五月末日

(薄謝進呈)

一成層圈飛行最高記錄一 昨年十一月十一日 米國南다고다洲에서 익스프로러ー」第二號氣球로 成層圈飛行의 壯途에오른 米國의 스티븐스」及 앤더ー슨」兩大尉는 同日 午前十一時四十一分 七萬二千三百九十五呎의 上空에達하야 世界의新記錄을지은 寫眞은 新上昇記錄을 지은 七二、三九五呎의 上空에서 撮影한 田野와 山地。

新刊紹介

▲金剛山 第九號 發行所 京城府樓下町七七ノ四 金剛山社 定價十錢

▲詩學 第二號(月刊) 發行所 京城府孔德町二一二ノ一 詩學社 振替京城一九七四五番 定價一部五錢

▲月刊野談 六月號(主要目次) 蛇로 變人…尹白南 死刑에선한 그果…申鼎言、蛙閣의春…金湛堂、紅衣將軍의 偉功…林民鎬 詩調 十首外其他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朝鮮出版社 振替京城二二八二一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朝鮮詩林 第二號 發行所 朝鮮詩林社 振替京城二四四八八番 定價十五錢 送料共

▲野談 六月號(主要目次) 王國은어서 金東仁、劍俠錄 金億女唐 尹秋雨 大院君民麗 秋淡外其他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定價二十錢

▲三千里 六月號(主要目次) 海外朝鮮人女子를찾아서…許貞淑外諸氏 無産者內閣出現할가…成賢勳外諸氏 全朝鮮에가장出色되는教育者男女敎育名士…外其他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 振替京城一九四九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朝鮮における工業資源調査(主要內容) 農產資源、水產資源、畜產資源、林產資源、鑛產資源、工業用原料工業用水、電氣、工業勞働者等外其他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 定價二圓

讀者社交室

▲安城0生에게 못습니다未安하옵니다만 大正八年陰五月二十四日이陽으로何月何日입니까下敎해주시기바랍니다(苑西町B生)

▲本人이 左記古代書籍을 가지고 잇는데 此를賣渡코저하오니 意向이게시거든 通知만하시면 곳御覽해드리겟습니다 禮記 周易、書傳、詩傳、論語、孟子、中庸、大學、朱書百選、宋名臣錄 東萊博議、事文類抄、左傳抄評等 府內長沙町一九五ノ一 李興順

▲下宿을求하오니 有意하신분은 讀者社交室을 通하시거나左記住所로 通知하시기伏望함 雲泥洞二一一番地 琴東用

▲寫眞技師를求하오니 有意하시는分은 本報社交室을通하여住所를알려주시든지 그러치안흐면 京城府蛸底洞四六의五○○으로內問하시드지 次住所로書信으로通知하시면곳차저가겟습니다

▲咸北行貴李寅龍氏에게 貴下의所有하옵신 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의書文講義를 小弟가買得코저하오니 通知하야주시요 古品耳와廉價의 幾何를 仔細히本欄으로나 直接으로通知하시면 送金하겟습니다 또讀者諸君이여 早稻田中學講義나 大日本國民中學講義나其他가잇스면 本欄으로通知하시되 讓渡하실價格까지요 黃海延白郡溫井面蘚室里 邊麗水

▲井上英語講義錄、研究社英語講義錄을廉價로 求합니다——古本 大邱府竪町二二二 崔升煥

▲統營郡山陽面永運里—龍華寺로부터 東南六粁地點에서 多數의高麗磁器破片이나오므로조곰파보왓더니 꼿따가잘된것도無數히나오므로오날 警察署에申告하얏습니다 三百年前朝鮮의忠臣李舜臣의遠績으로有名한 統營에서도七八百年前에優秀한陶工이잇섯다는것은李舜臣의遠績과함께永遠히빗나기를빌고깁거운마음을禁치못하나이다 仔細한것은表面住所로通知하시면곳가서이약이하겟습니다

▲일본꼬사리(와리쪼기)를원하시는이는곳기젼 ... 京城府積善洞三十五 崔泳柱 ... 電話光化門五○番 ...으로通知하시요

▲讀者中에서 玄濟明氏가 編한 世界名作 歌曲集」을 讓渡하실분은 讓渡價格과 送料와住所를알리여주십시요。販賣書店과定價等을 알리주시면 大端感謝하겟습니다。(黃海生)

▲讀者여러분께請합니다 小生의知面友人이 左記書籍中中古品이잇스면 買得코저하오니本人에게로通知하야주서요 上原敏一著科學的吃音矯正法 定價三圓也 栗石社發行吃音矯正講座 定價五圓也 朴澤忠太著科學的吃音矯正法 定價二圓五十錢 追而讓渡하야주실價格까지記送하시요 黃海道延白郡溫井面蘚室里 邊熙燮

▲醫專在學生求宿합니다 京城醫專病院近傍에 趣味的으로한사랑두어주실분은本欄을通하야 對答하여주시면 차저가겟습니다 (一讀者)

▲昭和五六年北靑郡에와서曾校先生노릇하든咸興德川、金秦鍋氏는지금어대게시며무엇을하고잇는지? 讀者諸位中아시는분이게시면社交室을通하야住所를下敎하면感謝하겟나이다 北靑金生員

▲再昨年 故鄉을떠나滿洲로成功의希望을품고간나의親愛하는金玉振君이여? 至今은어데서무엇을하는지本報社交室을通해알고저하니速히住所를아르켜주게 或讀者諸位中金君의方行을아르시는분이게시면通知해주시면고맙겟습니다 咸興 李佳鎬

▲本人이 가진 맨돌린(中古品)을 事情이잇서서(新品價四十八圓이오나) 廉價로 賣渡하려하오니 뜻이 게신 分은 問議하심을 바랍니다 金泉南山町三一의二一 金今順

▲白良欽君 (中東卒業生)府內現住所를速히通知하여주심을바랍니다 中東學校同窓植

▲每年 南京虫으로 苦痛을밧는者이온데 有効適切한藥品或은驅逐方法을 아시는이는 本欄을通하야 下敎하야주시압 (市內一讀者)

▲文藝家 李北鳴氏의住所를알고자하오니 엇던분이시고아시는대로알리워주심을바랍니다 京城積善洞八十二 崔榮俊

▲本人이『나쇼날·라디오』四球를 讓渡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 電話番號로 問議하시면 매우 조흔 條件으로 酬應하겟습니다。(電話(本)一八六一)

締切·六月三十日

明治가루젓을 먹이시는 어린애기의 住所氏名、生年月日을記入하야 東京市京橋區京橋二ノ八 明治製菓コナミルク係로郵送하시면出生後一年未滿의어린애기一人에一部式右育兒讀本及乳兒日記를贈呈함

東京兒童愛護聯盟編
「我が子の一年」
生後一ケ年の育兒の注意と指導
標準體重身長比較表及日記欄
無代贈呈!

(메이지가루젓)

明治コナミルク

十萬의어린이哺育●例에依하야實證되는品質!

母乳代用 加糖粉乳

連載野談 **布袋記** (廿七)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머슴살든임검 (十五)

봉상왕께서 동국하신지 어언구년이되는 추구월을 당하엿다。찬긔운이 가득한 창공은 한끗 높고도 맑으며 산에 널려잇은 섬이미저 붉은 입사귀비츤 이월꼿을 엇든역이는듯。쳐리마조차 살이쩟스매 대장부 천하를 휘행할듯이 넘치는이때 허물며 나라를 근심하는 뜻잇든 선배의 마음이랴?。

이때 창조리는 어떤 구든결심을 가슴에 깁히 품고 한番이 주시는 괴롬을 괴롭게 기다리는때가 정히 이가을이엿다

때에 마친 왕께서는 어느정명한 날을 택하사 선비게잇든 후산(候山)이라는 산에 산양을 나가시엿다。두번오지아니할 한놀어

주시는 조흔 틈이여!。』

하고 창조리는 왕의 뒤를 말아 후산에 이르럿다。

왕께서는 친히 활을 메시고 말을 달리사 후산을 헤매실새 끔게 붉은 단풍입은 말굽아래에 짓밟피고 홍전(紅箭)이번듸기는 소리에 놀낸 산새는 공중으로 어지럽게 풍긴다。

왕께서는 얼마뒤에 산새 몃마리를 잡어 가지고 행궁(行宮)으로 돌아오사 유쾌히 우스시며 상우에 누으사 피곤하신것을 쉬시려하신다。

창조리는 이틈을 타서 행궁밧그로 나와 조불과 소우 두사람에게 눈짓을하며 여러사람이 모힌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나와가튼 뜻을 가지신이니들은 나와가티 표적을 보혀 주시요。』

하고 갈입하나를 따서 자긔의 관우에 꼬젓다。

여러사람들은 창조리의 뜻을 얼는 짐작하고 손벽을 치면서 일제히 갈닙을 따서 각각 관우에 꼬젓다。

『옹!。대사는 멋은 뜻대로』

하고 창조리는 곳 왕께서 누으신 행궁문을 겹어 장수고 군사로하야금 에워 쌋다。

『옹?。이것이 웬일일고。알엇다、알엇서。나의 때가 다 되엿구나!。』

하시고 왕께서는 차시엿든 칼을 떼어 자처하셧다。

이 소식을 들은 왕자형제분은 크게 망극한 울음을 우시면서

『우리 형제인들 살줄이 몃날이나 되겟느냐?。』

하시고 또한 각각 스스로 목숨을 끈히엿다。

쉬웁다!。왕의 삼부자로에서 흘으는 피비린 냄새는 영광도 실변이 차기 어려웁고 포악도 실변이 차기 어려운것을 애처러울게 호소하는듯하얏다。

이에 창조리는 봉산(烽山)에다 왕의 롱칠을 뫼시는 한편으로 새임검을 뫼시러가는 절차를 재촉하얏다。

이때 을불은 조불과 소우두사람에게 붓들니어 서울 서바게잇는 오맥남(烏陌南)이라는사람의 집에 가치다싶이 되엿다。

그래서 을불은 그 긔구한운명이 속절업시 다된것을 짐작하게되니 일즉 결심한바가 굿세든 그한숨과 그눈물을 이때당하야는 금할수가 업섯다。

그런데 문밧게서 여러사람의 떠드는 소리가 요란히 들리드니 뜻밧게 창조리가 조불、소우등 문무관원을 잇글고 들어와에 업드리며

『선왕께서 너머나 무도하시사 나라사람들이 분복이 떠잇든位)하려하압는바 선왕께서는 그 그릇되신것을 뉘우치시고 자결하셧스니 망국, 망국하오이다 그러하온데 대통을 이으시 여진분을 가리는중 나라백성들은 왕손의 지극히 어지심을 우러러 등극하시기를 바라오니 롱상은 잠시라도 비치못하을자리라 속히 위에을으사 고구려대국을 빗나게하압소서。』

하고 임검이 되시기를 청하엿다。

을불은 뜻아닌 큰청에 놀낼뿐아니라 봉상왕께서 자결하셧다는 말을 듯고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삼갑마마, 그깁이 어인 망극하신 길이오니까?。』

하며 자리에 업드려 통곡하기를 마지아니한다

창조리이하 문무관원도 눈물을 흘리며 곳 을불을 명애에 시고 시위를 벌려 궁으로 향하얏다。

이때 을불이 임검이되여 오신다는 말을 들은 고구려서울안은 뭇백성의 노래와 춤으로 뒤집피엿다。

을불이 롱상에 올으사 지난일을 생각할새 특히 을불의 머슴사리, 소금장사。그것이 까마득한 압쫌인듯 싶헛다。

이에 을불은 고구려의 제십오왕이신 미천왕(美川王)이 되섯스니 이것은 일즉 미천왕께서

『짐생의몸은 살이찔사록 갑시나가고 사람의 마음은 착할사록 갑시 나간다』

하시든 그 어진마음의 꼿치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매기된것이다。

(이편끗)

映◇畵◇와◇音◇樂 (7)

金 管

最近 토-키-作品가운데 優秀하다는것에도 往往히 同一한 失望과 不滿을 품게될때가 잇다 即 音樂에 잇서서는 우리들의 感情이 表示하는 如何한 具象的對象도 업는것이 原則이다 다시 말하면 音樂은 抽象的인고로 엇던 具體的인 對象化는 잇슬수가 업다 從來의 音樂은 具體的 映像이나 거기서 가저온 幻想을 必要로하지 안는데서 우리는 感動하는것이다. 토-키-가되뒤의 例를들어도 『내가죽인사나이』가운데 戰爭場面에는 베토벤의 英雄交響樂 (變E長調심포니-)이 伴奏된다 英雄심포-니가나폴레온一世를描寫햇섯다는 傳說에 依存해서或은 그것을를어 文學的解說을 附加할려는것은 큰誤謬이다

이런것은 말할것도업시 토-키-前後로 映畵가無批判的으로 音樂世界에 觸手를빼친데서 經驗한失敗들이다

토-키-가完成되든 이제로부터 約十年前 爲先토-키-는 짜즈音樂으로부터 出發하엿다 (當時는 오날가튼 필님式이 아니고 되스크式토-키-엿섯다)最初 亞米利加에서 토-키-에 使用한 俳優를비롯하야 레뷰 쇼- 뮤지칼 코메듸-─俳優等을 利用하야 舞臺의레뷰를 토-키化하게 되엿다

토-키化된 레뷰는 파울·화이트만의 닥크도를 中心으로하고 其他짤드·디커-스(四十二番街)等에 이르기까지 監督 作曲者의 새로운進出은 굉장하여섯다 現在 亞米利加헐리웃드에는 얼마큼 作曲者가 잇느냐하면 메트로十名 파라마운트七名 二十世紀폭쓰六名 워너六名 RKO二名 其他 푸리로 三十名을 헤인다

그런데 이 레뷰나 오페레타系토-키-音樂으로말하면 正當한토-키-獨自의 境地의 音樂은아니다, 말하자면 純正토-키-의派生的인것에 지나지안는다 그럼으로 토-키-本道를 것는 眞實한 토-키-로말하면 첫재 마이크로폰을 爲한音樂(音響)이라는것을前提로해서, 새로운有能한 音樂家의 進出을 피하는現狀이다.

레뷰토-키-와 竝存한것으로 演劇的토-키-는 初期作品『매담×』이잇섯고 그것이뒤에 마이르·스톤의『市』에 이르는사이에 本來, 演劇을 映畵化, 하는것은 意味업는일이지만은 演劇에잇는 根本的인 演劇性을 映畵로서置換하는것으로서 印象的인 功績이잇섯슴을 알수잇섯다 다음으로 토-키-의 새로운길을 開拓한 偉大한人間, 루네, 크레르의 出現을 映畵史上의 큰意異라고 아니치못하겟다。

루네, 크레르는 一九三〇年『巴里의지붕밋』을 發表햇다。最近던, 필님에서 『幽靈은 西쪽으로 간다』을맨들기까지 크레르의名聲과 그偉大한手法은 그가音樂과 影像과의 同位를 토-키-우에 確立식힌것에잇다 우에서 數次이야기한 토-키-에잇서서 音樂이 映畵에從屬되느냐 그러치안흐면 그反對이냐하는 論難(實際製作에 잇서서 優劣되어온 토-키-一般形勢)을 떠나서 크레르는 音樂과映畵가 各己獨立된表現手段을 가지고 平等된映畵的要素로서 效果的으로맨들녀진것이다

스크린우에나타나는 事物에對해서 그事物과가른 表現을하는 音樂(音響, 音樂)이 同時에 이러나지만은 事物에 씽크로나이즈된 音樂은아니다 씽크로나이즈하는것도 납블理由지만 씽크로나이즈하는것보다. 씽크로나이즈 하지아니하고도 表現能力이 더크다고할것가트면 씽크로나이즈하지안는 別個의 音響(音樂, 音響)을 使用해도 無妨한것이다 말하자면 『影像』과 音의同時性이 깨지고 말게되다即 단하나의 獨特한 表現을 나키爲해서는 音과影像이 各己獨立된채로의 表現을合칠수가잇다─이러한 態度를가진立場에서 토-키를맨든 크레르의功績은 偉大하지안타고할수업다 이 크레르의最初作品『巴里의집웅밋』은 크레르自身이말하듯이 『토-키-와 無音映畵의 中間』에슨作品이다。이作品에서 使用된音으로만하면 音의遠近法이 巧妙하게處理되여잇는것이다。

크레르의作品과 同時期에製作된 니콜라이 엑구의『人生案內』에잇서서도 그러한試驗을차저볼수잇다。

以上要約해보면 토-키-初期로말하면 音樂이얼分本位로 不用意하게 使用되엿섯지만『音』이 漸漸 本格的으로 整理되기 시작하야 드듸어『모록코』에서 純正토-키-가 거러갈길을 暗示하엿고 오날에 이르기까지 레뷰, 오페라, 音樂映畵等에서 보는 影像과 音樂의 畵한것은 完全한 토-키-를 完成하기 爲한 努力으로 獲取햇것이다。音과影像의 씽크로나이제슌으로 말하면 토-키-藝術의 理想으로 技術的으로도 勿論 困難한것이다。

준·링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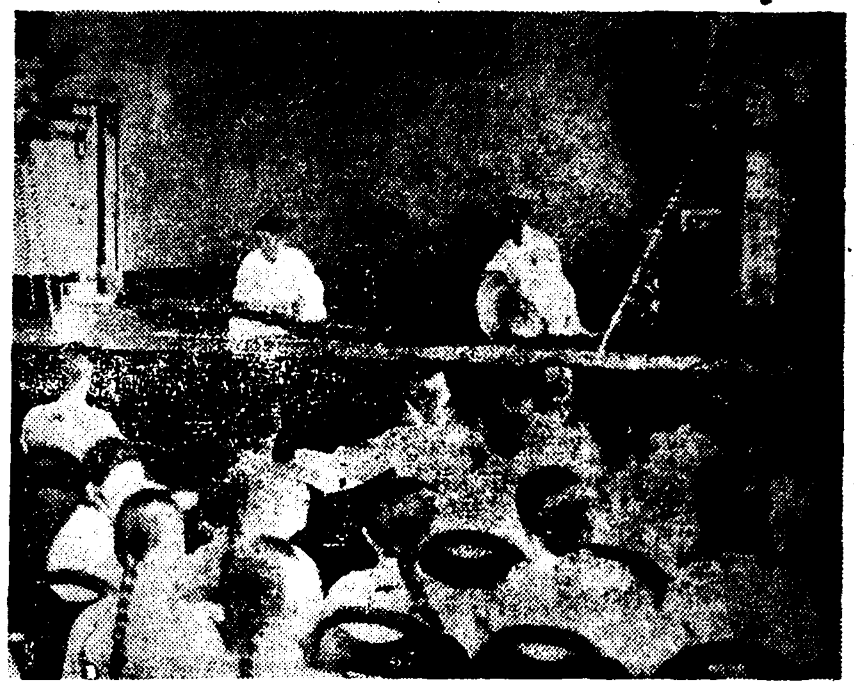
映畵短信

플로리다州에 第二聖林出現?

【헐리우드發同盟郵信】 플로리다州는第二의 헐리우드를 自州內에 建設해서 차차로는 그地位를 빼앗고자 最近數年間各方面에 猛運動을 努力하고잇섯든바 그꿈이實現될運命에이르른듯하다 바리·픽쳐어社의 新社長호프만君은 플로리다州노스·미아미의 보란드, 바크라는 勝地에다가스러디오建設의 計劃을 發表하엿다。同市의設備도 헐리우드以上의 豪奢한 設備를하리라고 떠든다。實現되는날은 일즉이헐리우드映畵會社에다가 增稅할意問을 가지고잇든 칼리포니아州도 호프만氏의 덕택으로 宿年의希望을達치못하게 될뿐이아니라든 나오는 구녀이 漸漸술어들어서 큰傷處를 밧게된다

樂壇消息

朝鮮音樂研究會 創立三週年記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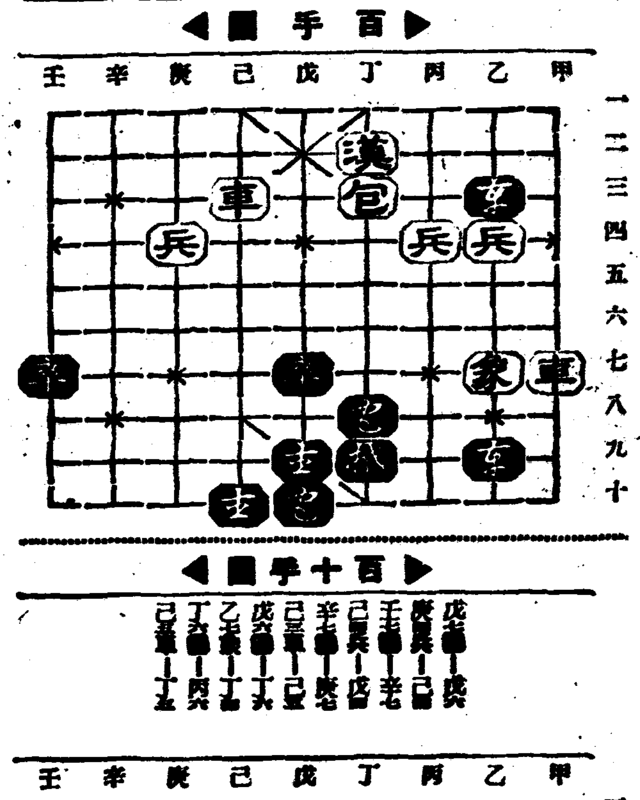


市內 苑洞에 잇는 朝鮮音樂研究會에서는 지난 五月十一日로서 創立 三週年을 맛는바 이미 男女會員은 三百餘名에 到達함이 아니라 將來歌詞의 校正 새로운 歌詞의 創立 또 唱劇, 新歌唱劇의 公演으로서 朝鮮音樂界에 잇서서는 貢獻하지 안한 業績을 작고 잇는데 會員들의 熱望아래 二十九日本社講堂에서 創立三週年自祝記念式을 盛大히 擧行하는 同時各界人士를 網羅하야 後援會까지組織하리라고한다。寫眞은同記念式光景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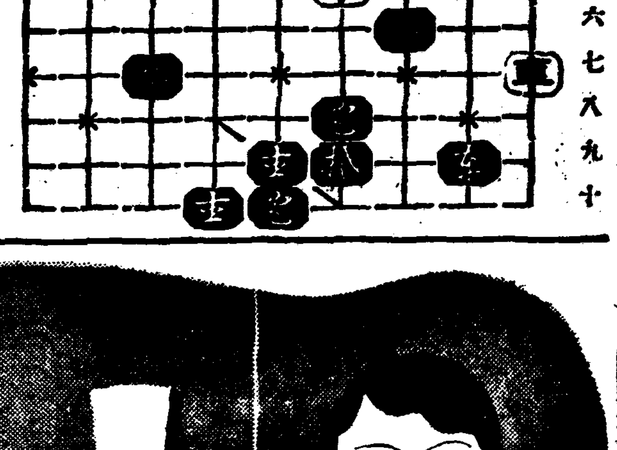
漢 李在鳳 先手 金于石

◀百手圖▶



◀百十手圖▶

戊七●─庚六 庚五兵─己五 壬七●─辛七 己四兵─戊四 辛七●─庚七 己三車─己三 戊六●─丁六 乙五象─丁五 丁六●─丙六 己五車─丁五



試寫室

『愛와光』

죤、M、스탈의 監督과 로바트、릴라와 아이린、던의 共演인 이 映畵는 그들의 이름으로만도 相當한 企待를가지기 足한 것이다。技巧를부리면서 조금도 틀이 보지안는 죤、M、스탈은 이 映畵에 잇서서도 역시 그만한手腕를 나타내고 잇다

한개의젊은 女性이 戀愛보담도 尊敬하는 마음에 끌리어 늙은 醫師에게 식집을갓는데 물에 빠진 엇던 부자靑年을 救하려다가 고만 늙근 醫師가 죽고 말앗다。남편을 일허버린 그女性은 부자靑年과 親해 지내다가 그靑年의 放浪한 生活로 因緣해 가지고 고만 失明을 하게 된다。公園 벤치에 어떤 아희를 다리고 안저 點字를 工夫하는 素朴의 女人은 누구드냐? 그곳 前날의 그女性이요 그前兒를 보고서 마음속기퍼 前夜의 눈물을짓는 紳士는 누구냐하면 그곳 前날의 그부자靑年이다。그 두사람은 다시 結合되야서 巴里에 나타난뒤로도 여러차지의 이야기가展開되는것이다。

이야기에는 無理도 업지 안코 그內容의思想도 一種의神秘로운맛을 가지는 同時 자칫하다가는 冗漫無味한 說教에 지나지못하련만 죤M、스탈의 손아래 無難하게 끌려가고잇다。아니 相當한 한幅愛情의 그 그림은 번연히 그 眞實치지 안한줄 모르지 안하면서 陶醉한 氣分을 이러키기에까지 이름을 꺼닷지못한다。

何如튼 유니버살 近來의 佳作이다 한편 볼만하다。

助演者는 월스·바다우아스、베퇴·파네스、사라·헤든、알프·모간等으로서 主演의 뒤를와단은勿論이요 助演者들의 演技도 다각각 相當하다고 보인다。(英語·日本字幕·十二卷)으로 三十日부터 市內團成社에서 上映할터이다。

寫眞은 同映畵의 한場面이다。

映畵界挿話

聖林의麗人群이 打倒館閒을絕叫

【헐리우드發同盟郵信】로만스打破를부르짓는 헐리우드, 로-키의 麗人十三名、果然그들의雄志壯圖가어떠할찌…… 예적로만스가備熱한聖林에서 그中에서 거룩하게도 스타를志願하는 襲女들이 『스타의地位를獲得하거나 그러치인하면 全然그希望을던지기까지 結婚한다든가 約婚한다든가하는 卑怯한꽃내를안켓다』고굿게盟誓하는同時 그이름도 中性的으로 『老嬢俱樂部』라고내걸고서 最近 그發會式을行하얏다 모여선諸孃아니諸老孃의名簿을보면 팔릐시아·에리스·아니타·쿠이스·마가렛트·리체·로자린드·말키스·린다·메리·잔네·마덴、카롤·휴스、마리·월든베로만트、쥰·크라뷔스、올리뷔아도·하뷔란드 等等으로 會長은업고 副會長으로 쥬안·무아嬢을 選햇다。重鎭의 발리샹·에리스嬢은 말한다

『로만스보다도 結婚보다도 스타進出을 食重하는 등言지요 他人의 干涉은 一切謝絕입니다 스타修業途上 脫線的失敗를 防止하고자 서로 團結해서 다각각 그個人決意의 貫徹을 期하는것입니다。우리會는 아메리카의 칼레지生活을본떠서、하이킹、뽀트놀이等을 事業으로해서 一路精進할터이다』

意氣가 이만큼肝하것은 感服하나그런데 이때까지의 로만스艶聞을 엇지處理할는지 그主要點에 關해서는 創立總會에서는何等解決策을 決定하지안하얏다고 한다

라디오

三十日 (土曜)

◇午後六時三〇 라듸오世界一週 修學旅行『伊太利』(二) 微文高普 金道泰

◇同六時五五 兒童新聞

◇同七時 紀念講演『東醫元師를 追慕하면서』 京城女醫 沈宜麟

◇同八時 講演 滿洲國特許法說明法과滿洲法에對하야 李釆鎬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꼿라령…(金、申) 二、섬옹의바련…(申) 三、靑月의愛情…(姜) 四、東風이불면…(申、金) 五、殘菊花…(金) 六、문허진情炎…(申) 姜文秀 金海松 申鼎秀

◇同九時 東南風說文外 一、東南風說文 二、念佛打令 三、배따라기 四、梨花打令 五、달거리 崔貞植 孔蘭香 伴奏 DK管絃團

◇同九時三〇分 映畵이야기『소(牛)는로압해잇다』 洪暎日

第一放送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佐藤泰舜

◇午後六時 (廣)이야기 平川淸高

◇同七時三〇分 (宮) 俚謠 新潟縣

◇同七時四〇分 (仙) 俚謠 山形縣

◇同七時五五分 (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一五分 (東) 人情噺 柳亭佐樂

◇同八時四五分 (東) 琵琶 平澤芝金外

◇同九時 時事解說

三十一日 (日曜)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遞信對殖銀』『京電對府廳』

◇同六時三〇分 兒童劇『꼿쌈이』一景

——【配役】——

꼿쌈이…金玉順 商人…鄭崴 吉順…朴容俊 福順…鄭熙淑 紳士…崔鍾淳 少女一…安大濟 少女二…李榮玉 少女三…鄭再順 明玉…成歡俠 老人…方材實 孔德普通學校少年會

指揮 金容德 解說 金貫國 伴奏 鄭貞淑 效果 金觀燮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神父 尹乙洙

◇同八時 歌詞 一、길軍樂 二、白鷗詞 文山紅 金鼎桃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참사랑……하우니作曲 二、드리라좋달새…슈-버트作曲 三、그리운노래……크라이슬러作曲 四、夜曲……데자作曲 五、라팔로마……이라듸에作曲 五、歌劇道化師中"衣裝을차려라"……레온카발로作曲 李仁範 伴奏 高俊基

◇同九時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개고리라令 四、興打令 卞眞紅 金柳鶯 大笒 朴鍾基

◇同九時三〇分 野談『괴꼬리노래』 申鼎言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 하-모니카獨奏와童謠 하모니가眞田明 童謠 安田스에꼬外

◇同一〇時四〇分 (仙)文藝講話

◇同一一時一〇分 講演 蓮沼門三

◇午後二時三〇分 合唱 遞信音樂同好會員

◇同三時 尺八과一曲 武井一鳳外

◇同六時 (大)浪曲童話劇 BK고도모서클

◇同七時三〇分 (大)바이올린獨奏 바이올린 짝、직보 伴奏 랑소、자노브로

◇同八時 (東)舞踊劇 能因法師 澤田調子外

◇同八時五〇分 (大)浪花節 東天紅 東天紅

一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遊覽歌外 一、遊覽歌 二、뒷山打令 三、금드렁다령 四、사술방아 五、처녀가 閔亨植 宋亨泰

◇同三時一五分 衛生講演 "淸凉物에對하야" 韓龜東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合奏 第一高普하-모니카밴드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産業뉴-스에對하야 經濟解說 協成實業 許然

◇同八時 講演『東西交通 이야기』 中央高普 金岸基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金龍煥

◇同九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伴奏DK管絃樂團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公道難 (나)唱劇調 沈淸이낫는데 鼓手 丁南希 池龍九

◇同九時三〇分 古談『懺悔의老僧』 金濯雲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英語講座

◇午後〇時五分 이야기 花園象定

◇同〇時三五分 (大)國民歌謠 奧田良三

◇同一時 (東)講演과音樂

◇同六時 (大)音樂劇 大阪放送童謠研究會

◇同六時二五分 (東)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 (大)講演 大阪商大學長 河田嗣郎

◇同八時 (大)演手 柳家雲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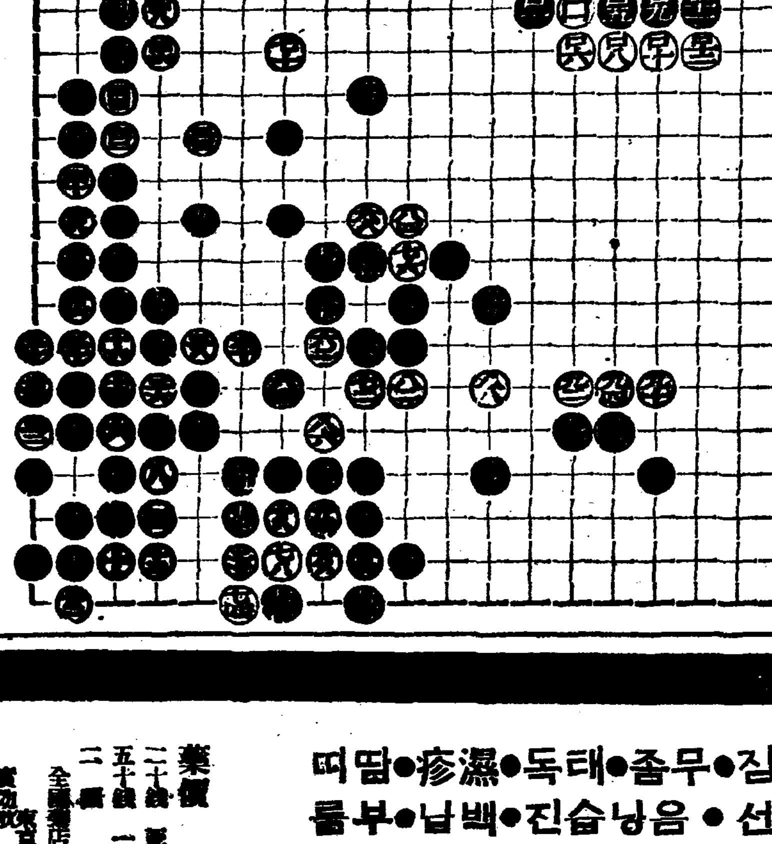
◇同八時二〇分 (東)長唄 吉住小三藏外

◇同八時五〇分 (大)라듸오드라마 辨慶 金子洋文作 水木久美雄脚色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丁奎泰 黑先 任佑植

●九十七 己의三 ○九十八 壬의三 ●九十九 子의七 ○一〇〇 己의五 ●一〇一 庚의五 ○一〇二 庚의四 ●一〇三 己의四 ○一〇四 庚의三 ●一〇五 戊의五 ○一〇六 己의六 ●一〇七 戊의四 ○一〇八 戊의六 ●一〇九 丁의五 ○一一〇 丁의六 ●一一一 丙의五 ○一一二 丙의六



棊樞文氏評日 黑己의三을 白이 壬의三으로 받은것은 依例正則이다 黑이 己의 三引出이 急務어늘 子의七으로 移着은 誤算으로 緩着되다 白己의五를 黑이 庚의五로 挾着함을 白이 庚의四로 除한후 戊의五로 延하이 可할듯하거늘 庚의三으로 抽立은 理解에 不及으로 自度하노라

皮膚病治療에外用常備藥

一 二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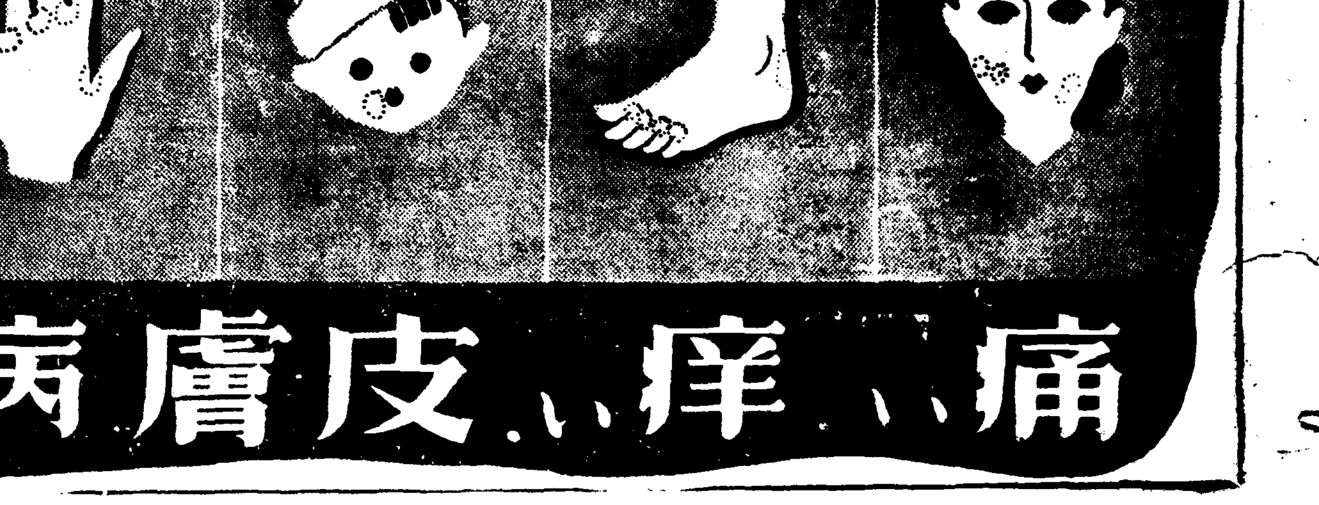
(主效) 버짐●무좀●태독●濕疹●땀띠 / 백선●음낭●습진●백납●부스름

藥價 二十錢 五十錢 一圓

全鮮藥店에잇슴 東京神田須田町 實效本舖 師岡天

至今은皮膚病의 流行期입니다!

이로부터는皮膚病이猖獗할때입니다。모든皮膚病은些少한放心으로곳全身에퍼지는것인故로곳히후미로治療하는것이좃습니다



移秧期目前에두고 小作爭議續續接踵

買收時約束無視 四十餘作權剝奪

◇…作人等調停申立準備中

—當局의處理를注視—

【新泰仁】 전북정읍군태인면에서는 이앙긔일을두고 어떤일본인지주가 사십여소작권을 무리하게도 박탈함으로 단단으로근근히 생명을 연장해오든 사십여소작인들은 졸지에 생활보장의 소작권을 빼앗기고 엇지할줄을 아지못하야 사선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중 십여소작인의 가족들은 살길이 업서서 어대로인지 이산했다는데 이제상세한 내용을 듯건대 전긔태인읍에 근거를둔 무극도(無極道)본부의 소유토지 일만륙천여평을 세분하야 무극도교도 사십여명에게 경작케해는데 금번에매각하지안흐면 안될편계로 일찍하순에 정읍군신태인면화호리(新泰仁面禾湖里)권태랑(權太郞)이란사람에게 매각하엿다 무극도에서는 토지는매각하엿스나 교도의생활을 보장시기기위하야 평당시가 오십삼전인것을 오십일전으로 가격을 인하하야 매각할시 교환조건으로 소작권은 전소작인이하게 해준다는승락서까지 무극도에 교부했슴에도 불구하고 매수한지주권태랑은 그토지의 관리권을 석전(石田)에게 일임함으로 석전은돌연사월오십사일에 사십여작권을 박탈하야 여에오인에게 배당해주엇는데 사실선 사십여소작인등 이미이산하여 태인을떠난 소작인이외에는 신지주권씨에게 작권을복구해달라고 하닛가 나는그토지에대한권한을 석전(石田)에게주엇스니 석전에게 말해주시요 함으로 소작인들은 다시석전에게가서 소작권을 복구해달라한즉 그대들은 무극교도로서 가산을방매해서 이산할지경이니 줄수업다함으로 일반소작인들은 소작인으로서 배신행위가 업는한 지주가갈면 옴긴다하드래도 소작권은 법규에의한 소작권한을 가질수잇다하야 조정신립을 준비하는터이라한다

인데 조선의소작문제가 얼마만치나 사회문제화하야것슴을 규시하게하고잇다

擔任部長談 근일의소작쟁의는 농번긔를당하야 시비하는것임으로 사실로 사정이딱합니다 그원인은 대부분이 토지의매매가 왕성하야것중으로 그부산물로 일어낫것인데 위원회로서는 그것을 오래동안끌어나려갈수업서서 속히해결시키라고 노력은하나 원악건수가만흐며 사정이구구함으로 매우곤난한바잇서서 금번위원들이 분담하야 실지조사를하기로하얏습니다 운운

一週日동안에 又十四件激增

【南原】 지주와 소작인간의관계를 법적으로 연결케하는농지령도무시하고 물상식하게도 회포한지주가 금춘에 더욱성행하야 일반농촌이 쓰러저가고 피폐하여가는거름을 더욱재촉하야 불안과 우울상태이고잇다 이반중되는 사실은 지난 십팔일까지에 열단행을 고하여온가한은 ……

公州郡內에서 벌서六十餘件

【公州】 농지령의실시도불구하고 충남공주군내에 토지를가진지주들은 농번긔도불고하고 작권을 함부로박탈하야 소작농은 불안에 싸여 공주군청소작위원회에서는 번벌하는 소작쟁의 조정으로 안비막개라는바 이삼개월동안 당군청에 쟁의조정신입건수가오십수건으로 작년일년간조정건수에 비하야 벌서이삼건이 초과하야 정작에 방분소작인들은 요사이 매일왜도하야 설회를 대인다하며 그간의소작쟁의 조정건수는대개가 소작인에게 구작을 서정다하며 지에 열단행을 고하여온가한은 남원분하 소작계의 소위지주대작인간의 차흘은 그뒤 엽수업이봉되야 도저사건의 계중을보게되것의 지난 이십륙일 남원군 소작조정위원회가 결해한정파로 보도페도 한 비가여 번에 불공하야 별음으로 회부하게되엿고 남어지는 모다가 작인쪽승리를 보앗다는것이다 그런데 시긔가 이앙긔가 절박하여진만큼 군위원회에서도 신정을 매우 예민하게 가지고 수속처리에 실로 여가가 업다고한다。

매개가 강하한 사용의 부정당한 배위로 매매될것으로 알로 사용배의 단속을 엄중처지히하라라고한다

永同郡內爭議는 大槪賣買關係

【永同】 벌벌이 늘어가는 소작농은 어대를물론하고 다가튼현상인데 이에부대하야 도한거실하야지는것은 소작쟁의뿐이다중 북영동군의 최근조정신립을 제출하여잇는건수만하야도 무려오십열건에 달한다하며 그외에조정신청을하지 못하고 여지업시소작권을 박탈당하는 어굴한 사건도 비일비재하는바 주외 소작권 이전문제에는 한 소작인으로 어의신립도 하지못하고 공작어시당하기만하는데 현재군당국에 조정신립한것은 대개가 동리사이에 이산하야서 매매하야서 자작을 하라는것이 대부분이라하며 그외에는 호흥석, 대구, 경성(京城)등지의외지주(外地主)를 상대로한사건도 게재하여잇다는데 최근에와서는 한지가 지난지오래인이때에 매일이다시피 조정신청이 답지하야 군당국으로서도 크게 두통중이라한다

調停申立逐日接踵 百四十件의多數

清州郡廳員의頭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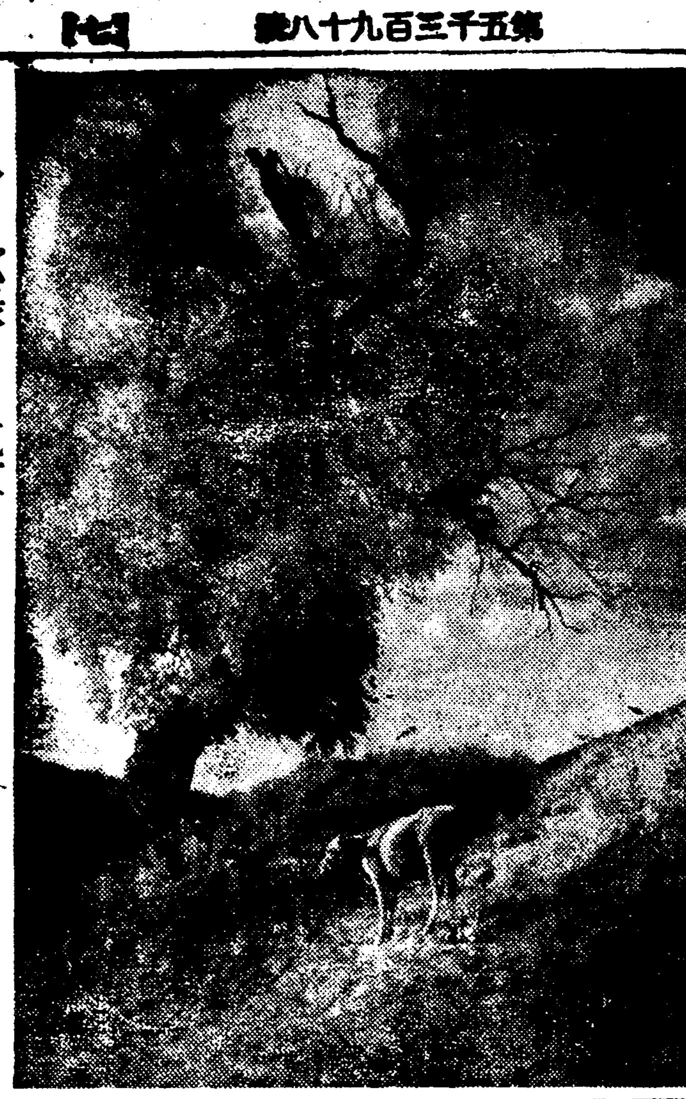
【清州】 조선의농민을 구호하겟다고 륙년여를두고 연구하고심의하야 재령발표된 조선의농지령도아무리한 효과를 내지못하고 그법령의덕분으로 지주와소작의 감정만을 악화하도록하는 소작쟁의만 점점 늘어가게하고잇다—군일농가에서는 농번긔를당하야 눈코를 돌사이가업는데 충북청주군내에는 날마다소작쟁의가 점증하야 벌서백사십여건에 달하엿다한다 이것은해마다 발생하는건수가 늘어가는것을 증명하는것으로 작년일년간의 총건수보다도 벌서십여건이 증가되엿다는데 군당국에서는 군소작위원이 그사무만을 전담하고잇스나 일일히사정을 조사할수 업을뿐만아니라 문서의정리조차 곤난을 당하고잇슴으로 무슨다른방법으로 속히해결 시킬묘안을 연구한결과 이십팔일부터 군청의사무담임자와 소작위원회위원이 각각분담하야 륙개면에서 십팔건에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하얏다한다 이와가튼것은 오축청주군에서 이번에처음보는바

未解決五十六件 總件數一九八件中

金海郡民울리는爭議

【金海】 무지한농민을 울리는 김해지방의 지주들은 이앙긔(移秧期)가빈두한 오늘에도 이작을시켜 소작조정신청원이 일백구십팔건이란 엄청난 숫자를내어중아직도 이해결총건수가 오십여건이나 된다는데 벌서 이앙긔도 몃날남지아니한 오늘에도 해결을보지못한그들은 생명선을 좌우하는 관계상 조리는 가삼은 말할수업다하며 지난이십팔일까지 군당국에서접수된 소작조정대조표를 본다면 다음과갓다한다

解決件數九八件　裁判所讓送件數二四件　未取調件數三二件



◇…軟綠이레吃草…(大同江岸所見)

昨今兩年에亘해 二十餘件을僞造

◇…面長의딸과知友의戶籍等

培花面長等公判에

【元山】 루보=면장의직과 호적서긔의 당임을 긔화로 근친자혹은 친척과 자긔자녀등의 호적초본을 위조하여 학교에 입학케하엿든 안변군배화면(安邊郡培花面)면장 오긔현(吳琪鉉)(ㅁ)동서긔 박찬룡(朴贊龍)(ㅁ)장병국(張丙郁)(ㅁ)리완호(李琓浩)(ㅁ)등에관한 공문서위조행사사건은 지난이십칠일에 함흥지방법원공판에 회부되여 함흥으로이송되엿다는데 이제그들의 죄상을 긔록에서 엿본바에 의하면 동면장오긔현은 작년십월에 년령이 초과되여잇는 자긔의오녀신영(信英)을 호적초본을 위조하야 배화공보에 입학케하엿스며 또한 서긔들과 공모하고 가튼수단으로 지인 친척등의아동오명을 부정입학케하고 금년에이르러는 보통학교를 비롯하야 원산(元商)원중(元中)사범(師範)학교등에 가튼위조초본을 꾸미어 십사명이나 입학 또는입학케하려든것으로 취소동소란을 일으켜 결국은 영오의몸이되엿다고한다

依然原因未判 裡里上水道故障

全部修理키로決定

【裡里】 그동안 여러가지로 문제중에잇는 리리상수도(上水道)휴무판 고장문제는 각방면으로 고장의 원인을 조사하엿스나 판명되지 안함으로 할수업시 휴무판 전부를 수리하기로 결정되엿다고한다

新昌簡校開校

有志寄附金遝至

【牙山】 긔보=아산군 신창면오목리(牙山郡新昌面五木里)유지제씨는 무산아동을 위하야 신창역전(新昌驛前)에다 간이학교를신설하고자하여 고려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면신달리(同面新達里)김동구(金東九)씨가 거번에 일천원을희사하엿고 금번에도 삼백원을 자진긔부하엿슴으로 일반에칭송이 자자하다하며 지난십팔일부터 벌서교사를 건축하고 생도사십여명을 모집하여 개교중이며 신교사는방금 건축공사에 착수중이라고한다

問題의朝鮮製紙 事業依然存續

用水難問題의解消로

【群山】 경제도시에서 공업도시에로 비약을하라하는 군산조서서 자본금오십만원의 군산조선제지주식회사(朝鮮製紙株式會社)가 공업용수(工業用水)문제로 해산(解散)이냐? 그러치아니하면 사업계속이냐? 에대하야 지난이십칠일 오후일시부터 명치정동회사 창립사무소에서 중역회를 개최하고 신중협의를 한결과 내용에 잇서서는 극비밀에 부치나 특문한바에 의하면 군산부회(群山府會)의 리사장인 좌등부윤(佐藤府尹)으로부터 만일 다른문제로서 동회사가 해산을한다하면 모르나 용수문제로서 해산을 하게된다면 그에대한 책임은 군산부윤으로서의 내가 지겟다는 언명에 조차동회사의 해산(解散)운운의 문제

南朝鮮蹴球戰에 求禮軍도出征

【求禮】 오는륙월일일, 칠일량일간전주에서 열닐남조선 축구대회는 남조선패권쟁탈의 백열전을 연출하리라는데 남조선축구팬의 이목을 오로지집중시켜이제그긔대는 최고조에달하여 그날만고대하고잇다는바 본보구례지국에서는 이대회에 구례군(求禮軍)을 참가시키고저 선수를훈련하는일방 만반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監督 宣大燮
▲主將 金庚善
▲選手 金炳昭 金亮俊 尹俊赫 張順南 鄭榮浩 李道順 安俊浩 申鐵均 鄭貴南 李泰東 李鍾太 外三名

漁父六名태운채 漁船行方不明

遭難? 機械故障?

【盈德】 경북영덕군강구면삼사동(江口面三斯洞)에서 지난이십사일에 고등어(鯖)를어중인 긔계선(機械船)어 여섯명의 승조원을 태우든바 삼사일이되도록소식이묘연하야 동어신, 륙, 칠량일간수색에 착수하엿다는바 그어선은 동리김수업(金守業)의소유긔계선 해경환(海慶丸)으로 여섯명의 승조원을 태운채 도라오지안헛다한다

◇行方不明漁夫=林萬浩(三五) 金萬守(三三) 鄭德明(三二) 徐先伊(二二) 金乙亥(二三) 朴永出(二四)

朝窒會社에서 一金萬圓喜捨

興南普校增築費

【興南】 작년도 흥남보교후원회에서증과학년연장을위하야 그중예산 이만오천원을 수립하고 그간여러가지 수단방법으로 후원은 영화대회의 잉여금등 모든활동을 계속하여 이만오천원조달에 여념이업는중 이에지성스러운 후원회원들의 활동이 주효되여 지난이십팔일 조질회사로부터 증축비로 일금만원의 희사를 어덧슴으로 학교증축사업도 이로써원만한 해결을짓게는되엿스나 아직도 일만여원을 거디야 무난히 해결되리라하며 진실로 후원회……

江陵郡沙川面下에 痲窒扶斯大猖獗

現在患者七名發現

【江陵】 강릉군사천면(沙川面)을 중심으로 장질부사가 발생하야 이래에 현재판명된 환자만이 칠명이나되는데 동면 면민들의 유일한 음용수로 사용하고잇는 사천(沙川)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물을 사용한자들에게 상당히 전파되엿스리라고 인정되어 앞으로도 환자는 속출하리라는 곰직한추측을가게하며 더욱 동면주재소 면사무소 학교등의 소재지에도 드되어 환자가 생겻는데 그중에는 의생으로환자 의자치료에종사하다가 감염되어 드러누어잇는등 자못위중한형편이라한다 이급보를드른 경찰당국에서는 중야(中野)보안주임이 방역반을 인솔하고 면내이 일반주민에게 예방주사를 강행하고잇는데 과연예방상태로서 종식을 고하게될지 크게우려중이라고한다

草里簡易學校 六月一日에開校

【北鎭】 농촌무산아동을 위주한 공립간이학교(簡易學校)가 지난 이십일부로 평북도내에는 사개소나 인가가되엿다는데 이중에는 북진공립보통학교(北鎭公立普通學校)부설로 북진면 초리동(北鎭面草里洞)에 설치되는 초리간이학교(草里簡易學校)도 다번 속안중에 잇든것이 금번실현을보게되여 아프로 크대가 크리라는바 오는륙월일일 동면서당(書堂)에서 해교사인 현 동명서당(東明書堂)에서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리라한다。

五山高等普校에 土地自進寄附

【古邑】 박천군덕안면 망우동(博川郡德安面望雲洞)에잇는 하천부지약오십정보의 매립인가(埋立認可)가 오산고보에 나리게되야 동교에서는 즉시다대한비용을 드려 그공사를 재작년에 맛친바 변수업일천여석의 새재원을 엇게되엿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이제자긔제씨가 그부근의 소유지를 학교에 자진희사하게되야 학교당국 및일반 사회에서는 이미거에 칭송의소리가 놉다고한다

堆地八百二十七坪 定州郡大田面雲鶴洞 朴元瑞
堆地二千一百八十九坪 博川郡西面松潭洞 尹明柱
同 同 芹攜洞 金秉七
同 博川郡西面 芹攜洞 金斗極
同 同 梨山洞 金調涅
同 同 同 金龜涅

蒼天은왜그리無心 雪禍뒤에또大雹

咸州郡一圓에廿餘分間幅湊

農作果樹等被害莫大

【咸興】 엇지기에 멧지기격의 함남도의괴롭—함남도는 압해 이앙(移秧)긔를 머슴남겨두지안흔 작금에 이상하게도 한냉한 저온이게속되여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안타고 일반의 우려가 막심하든중 지난이십팔일 오후三시부터는 함주군(咸州郡)동천면(東川面)덕산면(德山面)등 육비못하야 첨한적으로 큰뭉암만큼한 대박(大雹)이 약이십여분동안이나 쏘다저 농작물의 농작물(農作物)들은 과 과수(果樹)에 피해가 만심하다고하는데 뿐만아니라 산지대(山地帶)에서도 만히내렷다모양으로 그러치안어도 오랑닥하야 벌서서더번농이내려 마마한 영향을밧고잇든 농작물(農作物)들은 여지업시 피해를밧엇다고한다

調查까지不充分 戶別稅額에凹凸

賦課率도엄청나게놉다하야

海州邑民의大不平

【海州】 나날이 더하야가는생활고에 설상가상으로 과중한세금때문에 신음하고잇는것은 비단일지방에 국한되지안은 일반적현상이거니와 해주에서도 과중한납세때문에 민간측의 물의가자못놉다 그중에도 제일문제거리가되여잇는것은 호별세(戶別稅)인바 작년도에는 불과사오십전이든것이 금년도에는 일약이삼원 심한것은사오원까지 올나간테가 대다수이고 또가튼상태의가정에도 부과되엿스의 차이가현격한 점이만하 이러한점으로미루어 읍당국의조사의 불철저과세표준의 무책임성등을 나타내인것이라고 일반주민들은 적지안은 불평을가지고잇스며 면사람들은 고지서(告知書)를들고 읍사무소에와서 질문을하는 사람이만타 여기에대하야 최부읍장(崔副邑長)은다음과가티말하엿다

「고지서를 가지고와서 못는사람들은 잇습니다만은 사실을 말하면 알어듯고 도로도후리한 점이잇스면 정정(訂正)도합니다 금번도에 새로 호별부가되고 도금번도 해주읍장에서 재정된 호별세(戶別稅)가의 영향으로 다소액수가 늘은것입니다 조사가 잘못된점이 어잇지안느냐고요? 네 다소 잘못된점이잇습니다 그래서장은 가지고오면 다시 조사해서 곳처주기로 하엿습니다 그러고금번 우읍장으로 약이전호가 중가하엿는데 그부분의 납세액수가 늘어지기때문에 그것이 일반읍민에게 돌아가는 점도 잇습니다 이런점을 잘려해주엇스면 조켓습니다 운운」하다

北青에食刀强盜 百餘圓을强奪

【咸興】 지난 이십칠일 오후일곱시경 북청군 양화면 부창리(陽化面富昌里)양화시장에서 약 십리가량되는 고개(嶺)로 홍원(洪原)읍에 살고잇는 리명준(李明俊), 리동건(李東建)등 삼명이 지나가다가 돌연 김헙 숭회령으로부터 식도를가진 강도세명이 나타나서 식도를 돌고서든 돈을 내라고 위협하엿는데 리동건(李東建)등 두명은 교묘히피하야 무사하엿스나 리명준(李明俊)만은 소판돈 백원을 모조리 빼앗기우고 관리를 당하얏다는데 이급보에접한 북청경찰서에서는 대경실색하야 범인수사에 맹활동중이라고한다

苗板거의枯渴

求禮地方에旱魃

【求禮】 전남구례지방은 한발이 레심하야 모판을 아주도못하고 잇든곳이만코 이미 되여잇는묘판도 팟수부족으로고갈상태에잇스며 면농의 동포판 고대하고잇는터에 자라나는 잡(麻)농사는 물론 결실기에잇는 보리농사의 피해가 불소함으로 농민들의 수심을 펴지못하는바라고한다

地方人事

▲朝倉昇氏(前鎭南浦府尹平壤專賣局長)榮轉人事次 本報鎭南浦支局來訪
▲沈鍾芳氏(東一銀行元山支店支配人代理)新任人事次元山支局來訪
▲李鍾璨氏(前東一銀行元山支店支配人代理)辭任人事次同上
▲姜鍾德氏(咸昌普校敎員)辭任人事次本報咸昌支局來訪

通川

國島探勝團募集

▲時日 六月七日
▲人員 三十名
◇主催 朝鮮日報社通川支局 同 歙谷分局

水原

滿洲視察團員募集

▲時日 六月廿一日出發、七月三日歸着
▲視察地 滿洲、大連、旅順、奉天、新京、哈爾賓、圖們、羅津、淸津、朱乙、京城
◇主催 水原驛
◇後援 朝鮮日報水原支局

▲黑木健壽志氏(牙山郡守)新任人事次本報牙山支局來訪
▲南時憲氏(郡屬)(价川郡)新任人事次同上
▲李鍾憲氏(全州府土木主任)釜山府都市計劃主任轉職人事次同上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黑橋支局 位置 京畿道長湍郡 支局長 李潤培

謹告

永興支局 總務兼記者 金德良 右新任
造岳支局 營業部記者 金貞賢 記長 文利周 記者 許鍾淸 右新任
球場支局 妙香山分局長 宣元淸 右新任
水原支局 沙江分局長 王思植 右新任
甸州支局 咸昌分局長 韓二萬 右依願解任 咸昌分局長 金鍾大 右新任
奉天支局 記者 金長卿 右新任
麗水支局 總務兼記者 孔命甲 右依願解任
鎭興支局 營業部記者 李龍默 記者 金元植 記者 尹中杰 右解任 營業部記者 朴成福 右新任
谷山支局 總務兼記者 宋千龍 右新任
間島支局 記者 金弘謙 右新任
長淵支局 總務兼記者 鄭基晩 右新任
牙山支局 集金員 曹圭庠 右依願解任
農城分局 記者 崔菊植 右新任
羅州支局 記者 吳錫漢 右新任

小屋先生を圍んで

出席者 東京古醫學會 小屋良明先生
A 山中佐吉氏
B 秋葉忠次氏
C 岡田時雄氏
D 友田藏造氏 以上

호르몬問答

—아직研究中의것—젊어지는것과性—호르몬—瘀血이라는것은—血液의淸淨과血行의順調는젊어지는捷徑—

A氏『先生님近日流行의호르몬을 모르는우리들에게알기쉽게말슴하여주십시요』

先生『하하하하 또호르몬입니까 世上이全部가다호르몬時代라고하니까요』

A氏『아무래도사람은性慾과食慾이第一이니까요』

B氏『其中에도A君은더하하하』

先生『間斷하게말하자면호르몬이人體에미치는微妙한作用에는아직確定한定說이업습니다、말하자면研究中의것으로한마디로말하자면그分泌되는場所에依하야各其作用이달습니다

호르몬의語義는希臘語로『興奮』『刺戟』을意味하는것으로各호르몬의性質에依하야其機能을刺戟하야活潑하게하는作用을가진다는事實이立證되여가는程度입니다、』

A氏『젊어지는藥으로 性호르몬이라는것은어떤것입니까』

B氏『점점佳境으로 드러갑니다』

A氏『그런말하는當身도 듯고십허하는模樣이구려』

先生『아무래도젊어진다고하면性호르몬과關係를매즈나참으로젊어진다는것은完全한健康體를말하는것으로性的機能만이젊어지는것은異常發達이라고하는變態性입니다다하…』

B氏『너는分明히그럴지』

A氏『에의……』

一同『아하하……』

先生『人體內에이性的機能을刺戟하는호르몬을分泌하는곳에도여러가지잇지만 먼저男子면睾丸女子라면卵巢로부터分泌하는것이이目的에가장마히抽出되여잇습니다、』

C氏『설마 사람에게서나온것은 아니겟지요』

先生『사람의것입니다』

C氏『先生님정말입니까』

先生『정말입니다、그러치만 安心하십시요 설마사람의 ……』

排便의變色과 瘀血

粘膿보다도무서운 毒性을갓고全身의循環系를거칠게하는瘀血을體外에排泄하야 血行을調整하는小屋先生創製의 フルチ錠은古醫學의眞髓와 現代醫學의理論의一致가나은新解毒劑血劑이면 黑便이나오지안흘때까지 服用하시면自然히 苦悶의症狀이愉快해집니다。

A氏『젊어지는藥으로 性호르몬이라는것은어떤것입니까』

B氏『점점佳境으로 드러갑니다』

B氏『참말옛날부터말하는血色이조코나쁜것이 健康의標準이라고하는것이千古의眞理이지요』

先生『그러습니다、보십시요 健康한小兒의 血色을………一點의不純과 汚濁이업는血液이 潑剌하게血管을循環하고잇지안습니까 赤血球와의 微妙한聯鎖運動은 天賦대로發揮합니다 그런故로참으로젊어지는秘訣을 求한다면먼저『小兒의血液으로도라가라』입니다。結局小兒와가튼淸淨한血液에 血行을順調롭게하면身體各機能의新陳代謝는 旺盛하게되고참으로全身이젊어집니다。』

酒、煙草의毒이 病毒에 얼키면

先生『三十四十이되면술담배의毒과肉食毒等이쌓이고쌓여서血液을濁하게하지만自己는나이가든줄로생각하는梅毒과遺傳毒이얼키므로猛烈한潛伏性綜合毒素—이것을俗語로『瘀血』이라고하지만—가되여血液을濁케하여血行을妨害하고局所的障害를이르키며 또이것이血液內에吸收되면무서운自家中毒을보힘니다그리게되면아무리호르몬을分泌하여도或은榮養素를攝取하여도疲勞한血

先生『그런데옛날治療法은相當한副作用을相伴하는境遇가만허서 抵抗力이弱한病人에는應用할수업는缺點이잇습니다。그래서나는多年臨床實驗의 結果를加하야 古方醫學을 現代醫學의見地에서 比較研究하야副作用이업서 이瘀血을體外에排泄하는 新療法에成功하야其詳細를『血液循環과瘀血療法』으로서 發表하엿습니다』

C氏『フルチ錠은 即其苦心의結晶입니다그려』

先生『말하자면 그럿습니다。당신들도大端히 조치못한일을한 故로 一次血液의淸算을하시지 안흐면안될것입니다 하하하』

一同『하하하』

D氏『感謝합니다。先生님때문에 젊어지는秘訣을알어서 謝禮를 올립니다』

꼭一讀하시요

이러한梅毒性症狀인분은
◇些少한傷處라도곳덧나는분
◇부름이잘낫지안는분
◇머리가띵하야記憶根氣가업는분
◇頭痛과耳鳴、肩臂痛이잇는분
◇몸이무겁고밤에熟眠할수업는분
◇動悸時時로苦悶하는분
◇手足이마르고아픈분

無代進呈

古醫學에서新發見

病毒排除 血液循環と瘀血療法 (四六判五十頁)

葉書로申込하면 곳送付함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三五八番・二六三八番 振替口座東京九五三〇八番

"米穀統制目標" 專賣制로歸着?

●中 樂 閑

最近에 가끔 論議되어오는 問題의 一 米穀自治管理法은 지난 議會에서 議決되야 이미 日本內地에서는 勅令으로 公布를 보고 朝鮮에서는 不遠에 實施되리라고한다 이것이 朝鮮에서 實施되기까지의 經過에 對한 觀測은 어떠튼 米穀自治管理法이 다시 이에 對하야 말코자 아니한다 그러나 이 米穀自治管理法이 公布됨에 있어서 從來의 米穀統制는 이로써 一段落을 告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가 그러치 아니한 것은 米穀統制의 終局에 이르[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米穀自治管理法과 全朝鮮米取態度

全國一米取案엔形勢靜觀라가 官民合同協議會서獨自策講究

朝鮮取引所協議會에서는 二十九日午後二時半부터 朝鮮取引所樓上에서 總會를 開催하얏는데 總督府로부터 碓井商工課長 兩管事務官 吉池 三代兩技師가 臨席하엿스며 各米取代表者(釜山、鎭南浦欠席)出席으로 予先 吉池技師로부터 米穀自治管理案의 骨子에 對하야 說明이잇섯고 다음 新田養民氏의 米取에잇서의 自治管理案에 對한 米取의 對策等에 關한 情勢說明을 聽取한後 朝鮮의 米穀取引所로서의 態度에 對하야 意見의 交換을한結果 自治管理案은 아즉 實施되지안헛고 特히 議會에서 附帶決議를한데 對하야 農林省이 果然 어떠한 具體的方針을 提示할는지 不明함으로 米取更生策으로 가장 有望視되는 所謂 全國一米取會社案에 對하여도 卒然히實施를 表明함은 冒險事이라하야 그形勢를 靜觀한後에 官民合同의 對策協議會를열고 朝鮮獨自의 對策을 協議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問題되어잇는 土曜半休問題는 當分間은 行하지안키로 決定하고 午後五時半散會後 懇親會가 잇섯는데 그開會前東京으로부터 歸任한 石坂總督府技師로부터 議會에잇서의 米管案의 審議經過를 聽取하얏다한다

生産費決定要急

米穀三大調査 具體方法立案急行

◇…石坂技師歸任談＝外地米生産費 調査에關하야 具體的協議를하기爲하야 渡東中의 農林局石坂技師는 二十九日午後歸任하얏는데 右에對하야 三十日 左와如히말하얏다

生産費問題는 九年度分 十年度分을 充分히 檢討하야 다시 十一年度分도 具體方法을 協議하고 또自治管理案의 實施도 決定되엇슴으로 生産費를 數字的으로 發表할 情勢에 到着하엿다 米穀三大調査는 從資이 決定되엇슴으로 具體方法의 立案을 急히하야 自管案의 勅令、府令案의 立案과 相俟하야 八月頃에 各道農務課長會議를 開催하고 三大調査의 方法及 自管案의 總目標 等을 說明할 計劃이다

低利借換

新公債發行

【東京電話電通】大藏省發表＝政府는 來七月十五日의 實行으로써 昭和十五、六年度及 十七年度中에 償還期限이 到來하는 五分利國庫債券 三億五千餘萬圓의 第三回低利借換을 行하기로되야 借換하기爲하야 發行하는 新公債의 條件을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그리고 今回는 債券으로서 乘替募集하는 者에限하야 公募를 하기로되엇다 이에對하야는 從來公募하든때와 同樣으로 發行債務에잇서서 額面을하며 現金募集은 日本銀行의 引受에 依하기로 하얏다

그리고 日本銀行에서 引受하야 民間에 賣却하는 額은 勿論 現金募集額 九十八圓을 標準하기로하얏다

一、發行額
額面 三億六千百五十九萬圓

一、發行價格
現金募集者 九十八圓
乘替募集者 九十七圓五十錢

一、償還期限
昭和二十五年三月一日까지(十三年八個月、前回에 比하야 八個月延長)

一、利率 年三分五厘

一、利廻
現金募集 複利 三分六八 單利 三分七二
乘替募集 複利 三分七三 單利 三分七七

▲大藏當局說明＝【東京電話電通】大藏省은 第二回低利借替 好成績의 뒤를이어 三十日 第三回低利借替를 發表하얏다 이에依하야 五分利債의 債還額은 十一億三千萬圓 이에依한三分半債의 發行額은 累計 十一億五千五百萬圓이다 그러고 今回의 低利借替의 特色은 公募所有者의 乘替募集에 對하여 公募의形式으로 乘替應募價格을 五十錢引下하야 九十七圓五十錢으로하얏다 이主旨는 大藏當局의 說明하는데 依하면 昭和十五、六、七年滿期의 相當한先物인 國債로 證券所有者의 打擊을 緩和하여주고 하는데그 結果 現金應募價格으로서 計算하면 乘替應募의 分은 來十二月債還과 同樣의 計算이됨으로 五分利債所有者 特히 地方銀行이 低利借替에 依하야 밧는打擊을 緩和하라는 意圖이라한다 [illegible]

和蘭銀行利上!

◆…佛財界動搖로因한 資金逃避防止策

【암스테르담二十九日發同盟】和蘭銀行은 二十九日公定割引利率을 二分半에서 三分半으로 引上하야 五月三十日부터 實施할旨를 發表하얏는데 右는 獨蘭의 最後的防衛線으로 佛蘭西財界의 動搖로부터오는 資金逃避의 防止策이라한다。

靜岡初繭…品質良好

【靜岡電話同盟】廿九日 初取引을 行할 繭五十點에對하야 靜岡縣 繭檢定所에서 檢定한結果를 左와如히 廿九日夜 發表하얏다

▲白繭
繭層量 十六%十一
絲量 十二匁三分五厘
纖度 三、二一덴널
繭絲量 十六匁九分六厘
小節點數 九十二點
絲條斑 八十六點

▲黃繭
繭層量 十七%八十四
絲量 十四匁二分
纖度 三、六二덴널
絲總量 廿八匁六分五厘
小節點數 八十五點八
絲條斑 八十六點四

白繭 十四덴널 黃繭은 廿二덴널로 品質이 자못 良好하다

重工業化學工業

積極的으로助成方針

朝鮮의 工業的諸條件에 依하야 總督府에서는 經工業、重工業과가리 重工業、化學工業의 發展을 積極的으로 助成할 方針으로 이미 朝鮮其他에의 企業便益의提供은 그具體的表示로서 産業調査會에서도 그積極的助成의 具體的方法을 講究할 豫定이라한다

一、製鐵所의建設＝茂山開發과共히 製鐵所의建設

一、輕金屬工業＝이미 企業化되고잇는데 金屬마그네슘工業의積極的助成

一、石炭液化의擴充＝石炭液化에[illegible]

通商擁護法延長

對濠發動을協議中

⑥ 經濟關係法解說

日本貿易政策은 一層多事多難케되엇다 近者의 戰爭에는 宣戰布告가 업고 그手段으로는 먼저 經濟的攻擊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戰爭狀態에 드러갓다고보는사람도잇다 어떠튼지 目下 諸外國의 日本品排斥이 甚大하다 그러케 이에잇서 日本品이 너무輸入되어 大入超가되는나라는 모르지만 濠洲와가튼곳은 日本에서 二億四千萬圓의 輸入을하고 그곳에서輸入하는것은 겨우 六千數百萬圓의 日本品을 사갈에 不過하면서도 日本에對하야 輸入許可制를 適用하야 綿布、人絹等에 嚴重의 三倍에 達하는 高率關稅를 課하라고한다 그뿐아니라 日本이 三億圓이나 買超過되어 잇슴을 不拘하고 突然 日本綿布에 從價平均四割二分이라는 高率의關稅를 課키로하다 그러고 決及 關稅等은 日本과의會商을 決裂케하고 其他 만흔諸國이 알을 다투어가며서 高率關稅의障壁을쌋코 輸入配定과 日本品防遏等이 展開되고잇는터이다。

×

그러므로 政府가「貿易調節及 通商擁護法」의 有効期間을 來年五月로부터 向三個年間延長한것은 當然하다 日本으로서도 相對國의商品에 對하야 關稅引上은 勿論 輸入制限、禁止等의 報復手段을 議會에 附할치안코 어느때든지 斷行할수잇도록 한것이 本法의要旨이다 이미 이法律은 昨年七月 加奈陀에 適用하야 效果가 잇섯스나 目下의 相手는 濠洲이다 政府는 이法을 發動할方針으로 外務、商工、大藏이協議中인데 먼저 羊毛、小麥의 輸入業者에 鞏固한 組合을 結成케하야 許可制앞에 輸入數量의 大制限을 할形勢인듯하다 勿論 羊毛의輸入이 오래동안 激減한은 日本에 잇서 큰打擊이다。

日銀特融法延長

昭和二年 金融恐慌의때에行한 五億圓損失補償 日銀特別融通의 償還期限이 九千八百十七萬六千圓(昨年末)의 巨額償付가 남어잇다 이것을 無理히 回收할수도 업슴으로다시 앞으로 十個年間 延長키로 되엇다 現在償金하는銀行은 四十九行 昭和十五銀行等의 主要한것으로 臺灣銀行은 最近 完濟하엿스나 別途의損害補特融으로 이미二億圓程度의 損失 補償을밧고잇다

×

右擔保別內容은 有價證券一七○百萬圓(三四%二)手形壽一九七(三九%五)不動產九六(一九%三)財團其他三三(六%七)으로 이것이 十年後에 얼마를 回收할가 財界의 情勢如何에도 依할것이나 적어도二億圓가량은 回收不能＝國庫損失補償이 되지안흘가 借金한 銀行으로보면 利率은 三分九至十入厘이란 極度의 低率로 二十個年의 長期임으로 이에依하야 밧는利益이 莫大하다。

包括的輸入統制 政府에建議

經濟聯盟小委員會

【東京電話電通】日本經濟聯盟은 二十九日午後四時부터 丸之內工業俱樂部에서 滿洲問題에 關하야 小委員會를 開催하고 協議한 結果 政府의 通商擁護法 活動을 希望하얏다 그러고 그實効를 期하기爲하야 適當한 包括的 輸入統制方法을 講究하라는 趣旨를 政府에 建議하기를 大綱方針을 決定하고 案文整理를 하야 來六月一日 常務理事會에 附議承認을어더 三、四日에다시 聯盟會員總會를 開催하야 正式決定을한다고한다

蘭領印度政府

通商報復令公布

【바타비아二十九日發同盟】蘭印政府는 二十六號로 蘭印通商報復法令을 公布하얏다 그法令의 要旨는 如左하다

蘭領印度와 通商條約을 締結하지안흔 나라와 蘭領印度에 對하야 差別待遇를 하고잇는 나라 또는 蘭領印度의 死活的利[illegible]

春繭基準協定

六月五日에

春繭의 基準協定은 總督府斡旋下에 來六月五日 午前十時부터 總督府에서 開催되는데 製絲協會에서는 이를압두고 四日午前九時부터 評議員會、同午後一時부터 總會를 [illegible]

朝鮮商議全州提案

六月十六日 開催의 朝鮮商議에 提出할 全州商工會議所提案은 如左하다

▲全州＝第三種所得稅課稅方法改訂을 稅務當局에 要望할[illegible]

滿洲關稅改正에 朝鮮에서선손

滿洲國의 關稅改正에 際하야 朝鮮은 事後에 陳情、反對를하는等의 [illegible] 第三次改正에 對하야는 總督府로부터 朝鮮商議에 對하야 諮問案을 發하고잇는데 그諮問答申도 成案되엇슴으로 殖產局에서는 來六月中旬頃 總督府에서 諸關係者를 [illegible] 滿洲國關稅改正에 對한 朝鮮側의 希望條件을 協議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右協議에서어든 結論은 殖產局에서 關係官이 滿洲國에 出張하야 現地에서 折衝을 試하기로되엇다

金融債券

生保引受決定

[illegible] 金融債券의 引受五百萬圓이 [illegible] 大藏省의 斡旋에 依하야 [illegible] 生保證券이 引受키로 決定되엇다

下旬對外貿易

入超二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五月下旬 全國對外貿易概算은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九二、七五六
輸入	九四、八一〇
計	一八七、五六六
入超	二、〇五四

今日財界(三十日)

[illegible]

朝鮮內自轉車 販賣協定破裂

[illegible]

朝取新舊配當落

[illegible]

米日爲替昂騰

【京城電話同盟】二十九日發同盟 今日의 米日爲替는 前日과 比較하면 二仙高이오 [illegible]

經濟界消息

○拓殖會社事務所決定＝鮮滿拓殖會社 京城本社 事務所는 黃金町一丁目 元十八銀行자리로 決定하얏다고

○朝運支行長會議＝朝鮮運送에서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支店長協議會를 開하고 社長就任後 처음으로 朝鮮에오는中野社長과 相面을 兼하야 여러가지 業務上協議를 行하얏다고

○三井物產도 停年制實施＝三井物產에서는 三井合名의 例에 依하야 社員의 停年制(五十五歲)에退任)를 施하기로 二十九日 重役會에서 正式決定하고 七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엇다고

○都市經營總會＝朝鮮都市經營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東拓朝鮮支社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年六分配當을 爲始한 當期決算案을 可決하얏다고

經濟點描

○全朝鮮 米取聯合會에서는 全國 米取一會社案에 靜觀 獨自對策을 協議키로 決定

○말로만 獨自 獨自 하야도 獨自的 무엇이 하나이나 잇섯는가 統制 强化時代에 獨自란 될 까닭이 업는일 국으로 쪼차가지

○滿洲國 關稅改正에 對하야 事後 反對陳情하던 愚를 깨닷고 이번에는 朝鮮서 선손걸겟다고

○모든일이 宣言 如斯하여야 할일

商況(三十日)

株式 鐘新獨高 强調

日立會이오 月末인때 休日후압둔半[illegible]

各取引所後休

株式、商品等·各淸算 三十日後場은 月末과 土曜關係로 一齊休業이다

日産의强氣論

日産第一의苦惱는 資金難이엇고 第二는二重課稅 第三은自動車事業가를 將來難이複想되어 잇스나 最近의狀勢를보면 資金難은 金固定事業이 一部에잇슨等이엇스나 依然前途가 念慮되엇섯다 [illegible]

入超著減

＝下旬貿易入超는 二百五萬圓으로서 上旬入超七百十四萬圓、中旬入超一千四百四十八萬圓에 比하야 著減인바 貿易難이 이로써 解消되지는안는다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四三二〇 ▲石川島 新四六〇〇 ▲滿洲세멘트一〇六〇 ▲川崎造船三五二〇 ▲東洋拓殖四六五〇 ▲東滿洲四〇 ▲에라파이七二〇 ▲도쿄지鑛業 一八〇〇 (取引高一八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電通】月末關係로 氣乘薄이오各債共히 市勢保合이엇다

甲五分利	一〇〇、八五
一回四分利	一〇二、八〇
二回四分利	一〇二、八〇
佛貨四分利	一九八、一五

期米 强含裡에納會

前場强調

昨後場阪地卅三圓四十四錢止와 共히 卅一圓廿八錢에 據울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四十五錢인 一丁高를 擁하고 三十一圓[illegible]

上鞘? 下鞘?

新甫發會豫想

來六月一日에 發會될新甫八月限은 本海上期의限米로서 가장波瀾이 만흘것을豫期하고잇다 此限의發會가 上鞘일지又는下鞘일지 一般은 注目中인데 大體八限으로말하면 端境期에接近한 關係로보아서 當然히二、三十丁上鞘로發會가當然하나 그러나 昨年同期에는 例外四丁下鞘인 二十七圓〇一錢에 發會되바이섯슴으로 本年同限도 반드시 上鞘될이라고調키難하다 그理由는 市勢의位置가 昨年同期의 二十七圓丁에比하야 本年은 三十一圓三十錢으로 三圓以上이나 高位이오 値頃觀으로도 相當한 高價인만치 買方이 警戒自重할으로 昨年과如히 滯下鞘나 或은 同鞘의 程度로 發會되지안흘가 한商談도잇스며 一方으로는 원악買氣가 優越한此際이만치 적어도 一、二十丁上鞘로 發會되지안흘가한 豫測論者도잇다 果然上鞘? 下鞘?

期 東 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市場

…東京東新은 百四十[illegible]

目前的小揃?

[illegible]

鍾新拂込說再燃

[illegible]

中限戰의今後

淡米不足難免

[illegible]

各地新甫稍豫想

▲大阪、金澤、熊本、仁川、各二十丁上鞘
▲神戶、東京、名古屋、下關各十丁乃至二十丁上鞘
▲京都、靜山、木浦各十丁上鞘
▲大邱二十丁乃至二十五丁上鞘
▲釜山、十丁乃至十五丁上鞘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堂島前場强調

【大阪電話】整理以外에도 新規買物이 만코 新甫의 强調를 示하얏고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反落

定期는 軟調하나 所持側의 賣腰로 十五錢反落이엇다 丸仁三等三十圓六十錢 四等三十圓三十錢

仁川軟化

期米는 强堅이나 所持側의 實狙로 市況은 多少軟化되어 十五錢低唱이엇는데 越月待로 買氣는 不振이엇다 丸仁三等三十圓六十錢 四等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錢

釜山伸悩

今朝는 僅少하나마 新規實物이 需來되엇고 買方은 當用側의 適品買漁뿐이며 一般이 高價警戒嚴重하야 市況伸悩이엇다 四三等三十圓四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八錢

大邱保合

運作念慮에 依한 日本內地의 買氣豫想으로 所持側이 一齊히 實權賭합으로 大口實買가 업섯다 四三等三十圓十五錢 四等二十九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群山不變

定期는 依然堅調 가 繼續되나 產地가 急히 先走한 [illegible]

木浦小綿

[illegible]

株式 柳來檍商店
期米 [illegible]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 [illegible]

海外經濟(三十日)

[illegible]

京城正米(三十日)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京城絲布市勢(三十日)

[illegible]

京城油冲價

[illegible]

京城粕冲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期米(三十日)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賣買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海外銀塊

[illegible]